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돌아가는 일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 | |
|--|----|
| 5859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 4 |
| 하나님은 사랑이다..... | 6 |
| 2289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신비..... | 6 |
| 5689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 사랑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 7 |
| 영적인 존재들의 하나님을 떠난 타락..... | 9 |
| 7067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일..... | 9 |
| 8672 루시퍼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원인..... | 13 |
| 8880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 15 |
| 하나님의 구원 계획..... | 18 |
| 6336 하나님처럼 만들려는 계획..... | 18 |
| 6497 귀환 계획. 자유의지..... | 19 |
| 피조물들의 위로 향한 성장..... | 21 |
| 8216 원래 영이었던 영이 창조물로 변화가 되는 일..... | 21 |
| 8702 창조물 안의 존재의 느린 성장 과정..... | 22 |
| 인간의 창조..... | 25 |
| 5800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 25 |
| 7569 원래의 영의 자기 의식..... | 27 |
| 7824 타락한 원래의 영들의 끝 없이 긴 과정..... | 28 |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원죄의 구속..... | 31 |
| 7575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사역에서 나타난다..... | 31 |
| 7748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원죄의 사함..... | 32 |
| 8331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셨다..... | 34 |
| 이 땅의 삶의 목적은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 | 37 |
| 4933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이 이 땅의 삶의 목적..... | 37 |
| 6557 성품의 변화. 잘못 된 사랑에 맞서 싸우라..... | 37 |
| 7241 생명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 큰 책임감..... | 39 |
| 7351 사랑의 사람으로 본질적 변화. 하나님의 임재..... | 40 |
| 8019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 | 41 |
| 8510 사랑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 영의 불씨. 부어 주심..... | 43 |
| 아버지와 연결..... | 45 |
| 7116 겸손한 기도. 교만은 대적자의 요소이다..... | 45 |

| | |
|---------------------------------------|-----------|
| 8313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 46 |
| 8359 하나님과 연결이 그의 사랑의 비추임을 보장한다..... | 48 |
| 하나님과 연합..... | 50 |
| 5357 사랑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 | 50 |
| 8420 구속을 받은 이후에 온전해지는 것이 가능하다..... | 51 |
| 7133 다시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다..... | 52 |
| 7300 가장 짧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 53 |
| 8042 하나님의 큰 사랑..... | 55 |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B.D. No. 5859

1954년 1월 22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한계가 없고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또한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계시하게 한다. 왜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자발적으로 나에게 오는 존재를 단지 소유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추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그들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는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으로 너희를 창조한 너희의 아버지로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나를 계시해줘야만 한다.

나에 대해 너희에게 알려진 모든 내용은 내 계시를 통해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거나 너희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은 성취돼야만 하고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약속했다. 너희가 내 임재의 증거를 원하면, 너희는 내 계시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내가 너희와의 약속에 충실하게 너희와 함께 한다고 믿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사랑을 얻기 위해 너희에게 징조를 주기 원하는 내가 아주 큰 내 사랑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 의해 생성되었고 너희는 창조하는 권세이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한 아버지를 부인할 수 없다. 너희는 이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너희에게 속한다고 믿어야 한다. 너희는 아버지가 항상 영원히 너희와 연결되어 있기 위해 너희를 창조했다고 믿어야 한다. 너희는 그의 사랑으로 너희를 창조한 존재를 믿어야 하고 그가 또한 아주 지혜롭고 너희를 창조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너희가 단지 번덕의 산물이 아니라 높은 최고의 목적을 위한 산물임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창조주가 너희가 정함 받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고 어떤 피조물도 눈 밖으로 벗어나게 하지 않고 피조물들을 돌보는 가운데 그들의 모든 길에 동행한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너희가 비록 깊은 곳을 추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를 뒤따른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의 길에서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가 아버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내 사랑의 보살핌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항상 내 사랑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를 깨닫는 법을 배우

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의 생각과 눈이 지속적으로 내 역사와 사역으로 향하게 하고 모든 내 창조물들과 너희에게 창조주이고 유지자임을 증명해주는 모든 것으로 향하게 한다.

나는 먼저 너희 안에서 나를 너희의 창조주로서 믿는 믿음이 깨어나게 하려고 시도한다. 그런 후 내가 비로소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나타내고 내 말씀과 내 음성을 통해 너희에게 나를 계시한다. 내 음성은 나 자신이 너희의 아버지임을 증명하고 너희에게 또한 내 뜻을 알려준다. 그러나 너희가 내 뜻을 성취시킴으로써 너희는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고 너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나에게 나오고 내가 가장 큰 기쁨으로 너희를 소유하고 너희를 영원히 축복 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단지 너희가 축복되기를 원한다. 왜냐면 내 모든 사랑이 너희에게 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 자신을 깨닫고 너희의 목표와 너희의 이 땅의 과제를 깨닫게 되면, 너희는 비로소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가장 다양한 형태로 너희에게 계시해 주고 모든 계시는 나를 증명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임재할 수 있게 되고 내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나 자신을 계시해줄 수 있게 되면, 너희는 이미 나에게 상당히 가까이 다가온 것이고 내 사랑이 너희를 붙잡은 것이고 너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신비.

B.D. No. 2289

1942년 4월 4일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신비는 단지 사랑을 통해 드러날 수 있고, 스스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사랑하는 영적인 생각은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생각을 자원하여 받아들이는 일은, 즉 그런 생각 태어난 곳인 심장에서 뇌로 인도하는 일은, 다시 말해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소유하는 일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자원하여 받아들이는 일이다. 왜냐면 심장의 자원은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효력을 나타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는 신비이고,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러나 자주 저세상에서도, 여전히 신비로 남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사람들에게는 존재와 연결되어야만, 개념이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랑을 존재의 특성으로 여긴다. 그러나 사랑은 존재 자체이다. 사랑은 성품의 하나로 설명할 수 없고, 자체가 본재인 어떤 영적인 존재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사랑은 선한 것이고, 신적인 것인 반면에 하나님 자신은 단지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정도가 되면, 사람이 비로소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이제 느끼는 것은 단지 다시 사랑이지만, 하나님과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킨 모든 것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이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하는 일은 지금까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일이다. 사랑은 어떤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하다. 그러므로 사랑과 하나님은 하나여야만 한다. 그러나 사랑의 부족은 온전하지 못한 정도이고, 이는 또한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상태이다. 왜냐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는 일은 항상 증가된 행복감과, 내면의 평화와 힘이 충만하다는 의식을 갖게 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 모든 것이 신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나타나는, 즉 육체의 행복감이 아니라, 혼이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사랑의 감정으로 표현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그의 출발점인 하나님께 돌아간다.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 즉 그의 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사랑이 사랑을 향해 흘러가고, 이로써 존재와 자체가 단지 사랑인 존재의 근원의 연합이 이뤄진다.

아멘

우 주의 통치자에게 장애물이 없고, 모든 창조물이 그에게 복종해야만 하고, 모든 창조된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이든 이 땅의 형체 안에 묶인 존재이든 그의 뜻에 복종해야만 한다. 비록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의 권세와 그의 의지에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그의 뜻이 유일하게 다스린다. 왜냐면 그가 유일하게 하늘과 땅의 주님이고, 축복된 영의 세계와 또한 어두움의 나라를 다스리는 주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님을 인정하는 일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아야 한다. 왜냐면 사람들을 둘러싼 모든 것이 주님과 주님의 뜻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이 자유의지를 받았지만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대로 바꿀 수 없고, 사람은 또한 자신이 동인이 되어 자신의 눈이 보는 것과 그의 감각이 느끼는 것을 생성시킬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지 못한 것이고, 그는 거짓을 통해 자신을 창조한 영에게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영원의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 근처에서 추방되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선포하게 된다. 하나님의 힘과 권세는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일은 자신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이 자신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들이 자신을 믿기를 원하고, 자신의 권세와 힘을 드러내면서 그들이 자신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왜냐면 그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면, 그가 단지 얻을 수 있는 자신의 피조물들의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창조물들이 그의 피조물을 위해 생성된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새로운 창조물을 항상 생성하게 하는 힘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창조물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목적에 합당해야만 한다. 그의 창조물은 행복과 축복을 주거나 또는 행복하고 축복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런 사랑이 만들려는 의지를 보기 원하고 볼 수 있는 사람 자신은 영원한 창조주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의 증거가 제공되는 곳에 또한 사랑이 깨어나기 때문이다. 그의 권세와 힘을 증명하는 일이 그의 창조물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모든 창조물 안에서 그가 창조하게 만든 그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한다.

그러나 한 존재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먼저 존재 자신을 깨달아야만 하고, 이 존재에게 능가할 수 없는 권세가 있고, 최고의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만 하고, 믿을 수 있다. 왜냐면 이런 권세가 모든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으로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일을 섬기는 일에 유용하고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의 발산인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런 최종적인 목적은 이미 단지 하나님을 최고로 온전한 존재요 사랑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다. 모든 생각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둘러싼 창조물을 관찰해야 한다. 이로써 그가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한다. 즉 하나님 자신이 창조물을 통해 자

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없고, 권세와 힘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그의 권세와 힘이 단지 모든 것을 비추는 그의 사랑을 통해 역사한다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그의 사랑은 응답하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부인할 수 없고, 또한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깨달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인정해야만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권세가 충만한 모든 세상의 통치자의 의지를 영원히 부인할 수 없다.

아멘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일.

B.D. No. 7067

1958년 3월 17일

너희 내면에 아직 어두운 곳이 밝게 되는 일이 내 뜻이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답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기 원하고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내 사랑과 지혜 가운데 나를 깨닫고 나 자신에게 그들의 사랑을 드리게 하기 위해 답변한다.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일은 영적인 과정이었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 자신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빛의 존재가 단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합당하게 이 과정의 대강의 윤곽만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렇지라도 이 윤곽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를 밝게 해주는데 기여하는 깊은 이유와 끝 없이 많은 중간 과정이 생략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단지 진리를 가르침받기 원하는 너희를 혼란 된 생각 속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첫 번째 존재를 창조했을 때 단지 내 항상 발산되는 사랑의 힘을 받아야 하는 그릇을 창조하려는 생각을 했다. 왜냐면 내 제한 없는 사랑은 자신을 선물하고 항상 단지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의 힘은 쉬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영적인 창조물들을 생성했고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에 합당한 다시 말해 내 형상인 어떤 존재를 생성하기 원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다. 내 곁에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생성되었다. 나 자신이 그로 인해 기뻐했고 그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나 자신의 형상이고 이제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그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내가 그 안에 부어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 힘의 원천이 형성하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존재는 자신 안에 자신에게 쉬지 않고 흘러가는 사랑의 힘의 흐름을 활용하고 자신이 존재들을 생성하려는 의지와 소원이 있었고 같은 과정이 이제 반복되었다. 왜냐면 내가 바로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가 자신과 같은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에 참여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 자신의 형상으로써 존재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나로부터 항상 사랑과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 존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놔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은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창조하는 역사를 일으켰다. 이제 창조된 존재도 나 자신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와 다를 수 없었다. 존재들은 최고로 온전하고 빛을 발산하는 아주 권세 있고 모두가 나 자신이 나로부터 생성되게 한 형상에 합당한 영들이었다. 비록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의 의지가 이런 내 능력을 사용했을지라도 그가 창조하는 일을 비로소 가능하게 해주었던 나로부터 흘러간 능력 때문에 나 자신이 그들의 창조자였다. 그러므

로 모든 존재들이 나와 내 첫 번째 형상으로부터 생성되었고 모든 존재들은 같은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원래 창조 된 존재 안에 내 의지가 역사했고 원래 창조 된 영들의 무리들은 나를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왜냐하면 내 사랑의 불길이 그들의 원래의 성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순수한 사랑의 생성물이고 이로써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은 나에게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축복된 조화와 계속하여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끝 없이 긴 시간이 흘러갔다. 이런 상태가 바뀔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창조하는 과정이 단지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의해 첫 번째로 창조 된 빛의 전달자인 존재가 나를 보려는 소원으로 인해 일어났다. 존재의 나를 향한 사랑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능력과 빛의 중심으로서 나에게 의해 창조 된 존재들이 나를 볼 수 없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나를 보기 원했다. 나 자신의 빛의 불씨로 창조 된 그가 내 빛이 충만함으로 인해 소멸되었을 것이므로 보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가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나로부터 독립되게 만들고 동시에 원래 창조 된 영들의 무리 앞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 보이려는 생각이 그를 스쳐 지나갔고 더 나은 깨달음에 반해 나를 보려는 갈망의 결과로써 그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모든 존재들은 온전함의 증거로써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항상 내 의지와 일치했다. 이 자유의지가 이런 생각의 혼돈을 허용했다. 그러므로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가 자신의 의지를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 나에게 의해 금지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창조하는 일은 중단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의 의지가 더 이상 내 의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내 사랑의 흐름에 자신을 단았다. 그러나 항상 단지 잠시동안 단았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저항이 아주 적어 사랑이 흘러갈 수 있었고 그가 전적으로 모두 나에게 다시 헌신했기 때문이다. 이는 능력의 흐름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줄어들지 않는 창조하는 일을 의미했다.

그러나 잘못 된 생각이 항상 또 다시 그 안에서 떠올랐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생각을 나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렸다면, 내가 이 생각에 반론을 제기했을 것이다. 그는 한 동안 나를 제외시켰고 자신의 능력이 연약하게 되었음을 눈치 채지 못했다. (1968년 3월 16일) 그가 잘못 된 생각을 통해 나와 연결을 느슨하게 하였을 때 사랑의 힘의 흐름도 줄었다. 그러나 그가 이미 내 능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생명으로 생성되게 한 셀 수 없이 많은 영들의 무리를 보면서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

내 능력이 비로소 그가 존재들을 창조할 수 있게 했다는 것과 그의 나를 향한 사랑이 비로소 그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항상 또 다시 강조해야만 했다. 이로써 그의 사랑이 줄어들므로 능력의 제공이 줄어든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은 나와 루시퍼와의 연결에 대한 증명이었다. 그러므로 루시퍼가 의식적으로 나를 떠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어떤 존재도 창조할 수 없었다.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은 나로부터 나온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다.

그렇지라도 모든 존재들의 큰 부분이 나를 떠났다. 이런 사실이 존재들의 원래의 성분이 서로 다른 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만하게 한다. 나는 나로부터 단지 하나의 자립적인 존재를 생성했고 이 존재는 내 형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존재에 의해 생명으로 생성된 영의 존재들은 다시 전적으로 나와 내 형상에 합당해야만 한다. 존재들은 똑같이 온전하고 최고로 빛을 발산하는 피조물이었다. 왜냐면 전적으로 같았던 우리 둘의 사랑과 의지로부터 첫 번째로 창조된 빛의 전달자보다 어떤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최고로 온전한 존재만이 단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도 비록 그들이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권세가 충만했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깨달았다. 왜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이다. 경외심 가운데 나를 섬길 자세가 되어 있고 항상 단지 내 뜻대로 역사하는 이로써 나 자신의 형상인 셀 수 없이 많은 영의 무리들이 최고로 축복된 가운데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였다. 이런 묘사할 수 없는 축복된 영의 무리들이 빛의 전달자의 나를 향한 사랑을 항상 더욱 증가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 안에서 여러가지 느낌들이 싸우기 시작했고 그는 영광스러운 빛나는 존재들을 보고 이제 나 자신을 보기 원했다. 그는 존재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이 나보다 월등하다고 믿었고 자신이 나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알았을지라도 나를 더 이상 모든 존재들을 생성한 분으로 인정하기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흘러가는 능력을 의식하는 가운데 힘의 원천을 떠났다. 이런 일은 영원한 기간을 통해 일어났다. 왜냐면 항상 또 다시 축복을 향한 갈망이 그를 나에게 향하게 재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기 위한 능력을 항상 또 다시 받았다.

이처럼 이런 존재들도 그들의 원래의 성분은 같았다. 다시 말해 나로부터 발산된 사랑의 힘이었다. 그러나 한동안 나를 떠난 일이 창조된 존재의 의지와 사랑이 나보다 그들을 생산한 자에게 더 향하면서 창조하는 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나는 이런 존재들과 빛의 전달자를 다르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정도로 빛이 충만했고 마찬가지로 나를 자신들의 창조주로 깨달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큰 결정을 요구하였을 때 그들의 의지가 자유한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1958년 3월 17일)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는 내가 모든 존재들과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된 것처럼 자신에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이 존재해야 하면, 내 사랑의 힘이 그들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이제 그에 의해 창조되는 존재들이 이미 나를 떠난 의지를 가졌을 때 그들과 연결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영의 존재들도 내 대적자에 의해 나를 떠나라는 자극을 받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내 대적자의 유혹에 넘어갔고 루시퍼는 이들을 깊은 곳으로 끌어 드렸다. 그들의 깨달음이 진실로 내 대적자의 비열한 계획을 혐오했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더욱 더 컸고 나에게 돌아오는 길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내 대적자를 추종하는 영들이 나를 떠났을지라도 초기에 창조된 영들의 더 많은수가 나에게 머물렀다.

루시퍼가 나를 대적하기 시작한 숨겨진 저항은 셀 수 없이 많은 창조된 영들이 의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나를 위한 또는 나를 대적하는 결정해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저항이 지금까지 굳은 연합을 방해했고 한때 내 형상이었던 존재들을 같은 의지와 같은 사랑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고 분리가 일어났다. 이제 비록 내 능력이 그들을 창조하는데 참여했지만 그들을 생산한 자와 같은 성정을 가지게 된 우리의 사랑으로 생성된 존재들이 이런 분리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먼저 생성된 빛의 존재에게 이런 저항이 아직 없었고 빛의 전달자의 사랑과 의지가 전적으로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부터 단지 우리와 전적으로 동일한 존재들이 생성되었다. 존재들은 빛나는 충만한 빛과 제한이 없는 능력을 가진 나 자신과 동일한 내 사랑으로 나로부터 생성된 형상이었고 적은 수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나에게 머물렀다.

적은 수의 존재들에게 루시퍼 안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 존재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게 했고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했고 필요에 의해 나를 볼 수 없게 만든 것으로부터 잘못 된 결론을 내려 볼 수 있는 존재를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했다. 볼 수 있는 존재는 이제 자신을 높여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자기에게 끌어 드렸다. 그러므로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의지적으로 나를 떠났고 이로써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모든 존재들이 한때 빛과 힘을 발산했다. 왜냐면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이 없이는 어떤 것도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빛의 발산은 먼저 나를 향한 루시퍼의 사랑이 줄어들어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이 존재에게 깨달음의 빛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면 창조하는 순간에 내 사랑의 힘이 다시 모든 존재들을 생산한 자에게 충만하게 흘러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의지적으로 나에게 저항해 이제 그 자신이 나처럼 마찬가지로 능력이 충만하다고 믿고 능력의 흐름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능력을 받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이런 창조하는 순간은 항상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한때 내 형상이었던 그의 영의 상태는 어두워졌고 내 상극이 되었다. 그의 성품은 전적으로 나와 반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세와 강함으로 착각했던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고 내 사랑으로 생성된 최고의 존재가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왜냐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특징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그의 의지를 나에게 향할지 또는 그에게 향할지 택할 자유가 있었다. 모든 존재는 의지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왜냐면 모든 존재는 빛의 깨달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생산자의 재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내 사랑을 잃지 않았다. 왜냐면 내 사랑이 존재들을 생성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존재들을 영원히 소멸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저항을 줄이기 전에는 내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이로써 불행할 것이다.

그러나 존재의 저항도 줄어들 것이다. 존재는 언젠가 다시 내 사랑을 구할 것이고 의식적으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 존재는 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것이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재에게 그들이 보기를 갈망했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아멘

루시퍼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원인

B.D. No. 8672

1963년 11월 13일

내가 나 자신의 축소판을 생명으로 불러 일으켰을 때 선물해 주기를 원하는 내 끝없는 사랑을 부여할 수 있기 위해 그릇을 창조했을 때 내 사랑이 능력으로 역사했다. 이 능력은 창조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했다. 내 능력을 모든 그릇에 부여했기 때문에 나로부터 창조된 존재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창조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

왜냐면 이들은 내 형상이 같은 창조하고자 하는 열망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계속하여 흘러 들어가는 능력이 역사하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능력의 근원인 나에게서 흘러 나가는 능력이 계속하여 생명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모든 존재들이 모든 종류의 창조물들을 창조할 때에 어떠한 제한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이 가운데 그들 자신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끝이 없어서 내 사랑의 힘이 모든 존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흘러 들어 갔기 때문이다.

이런 존재들이 창조 일을 중단이 되지 않았다. 왜냐면 내 능력은 제한이 없고 절대로 소진될 수 없고 한때 나로부터 배출되어 나온 모든 존재들이 자신을 나에게 열어 두는 동안에는 다시 말해 내 사랑의 비추임에 저항을 하지 않으면, 창조하고 조성하기 위해 나로부터 제한이 없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영원히 흘러 들어 가서 항상 영원히 창조물들이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축복된 상태는 진실로 중단될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나에 의해서는 절대로 존재들에게 제한을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의 넘치는 축복된 상태에 존재들이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원인이 되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 자신이 그들에게 같은 존재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실제로 나를 자신들이 창조되어 나온 자신들의 아버지로 알았다. 그러나 나 자신을 그들이 볼 수 있게 그러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를 내 온전함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잘못 된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들은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 질문을 했으면 나는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었을 것이고 이로써 그들은 그들의 잘못 된 생각을 깨닫고 수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적인 내 온전함에 대한 의심에서 그들은 나에게 감출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강요를 하지 않고 그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놔두었고 그들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했다. 왜냐면 그들은 첫 번째로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존재로서 모든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빛 가운데 빛나는 존재 안에도 같은 의심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존재는 실제로 나에게 영원히 영원 동안 전적인 사랑을 나에게 드렸다. 그는 그의 의지가 자유하였지만 이런 사랑 가운데 나와 같은 의지 안에서 넘치게 축복되었다. 그러나 한 동안 이 빛으로 비추어진 존재에게도 의심이 일어났다. 왜냐면 나는 그에게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나에 대한 큰 사랑이 항상 또 다시 솟아오르는 의심을 물리쳤다. 그는 자신을 나에게 드렸고 내 능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들을 계속하여 창조 하는데 자신의 축복을 느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의심이 항상 또 다시 일어났고 그는 할 수 있었던, 이 의심을 나에게 알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심을 하는 가운데 이 의심을 키워 나갔고 그의 나를 향한 사랑은 줄어 들었다. 그러나 이로써 그는 자기 자신이 연약해졌다.

왜냐면 그의 연약해진 나를 향한 사랑이 내 사랑의 흐름을 줄였고 창조적인 일에 제한을 주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나를 볼 수 있었다면, 그에게는 나로부터 떠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의 불이 그를 삼켜 버렸을 것이다. 왜냐면 어떤 피조물도 소멸되지 않고 내 사랑의 근원의 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알고 있었다. 왜냐면 그는 최고의 빛이 충만한 깨달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가장 밝은 빛과 가장 완성 된 아름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보다 더 크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장난을 계속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빛과 아름다움에서 능가하는 어떤 존재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창조 된 존재들에 대한 지배권을 요구했다. 실제로 그는 이 모든 존재들을 생성시킨 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나로부터 받았다. 그는 이제 영적인 존재들의 무리를 통해 자신의 권세를 보았고 그러므로 나로부터 능력을 받을 필요 없다고 믿었다. 그는 수많은 존재들을 창조함으로써 이들을 나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믿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나를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무기력함의 증거로 보았다. 나는 그가 믿음대로 그를 놔 두었다.

왜냐면 나는 그를 전적인 자유로운 존재로 나로부터 생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그가 영원 동안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될 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의 생각과 의지를 바꾸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능력은 이제 저항과 거절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내 능력은 전적으로 역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는 어떠한 창조물을 창조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크고 강력하다고 믿었다. 왜냐면 자신과 같이 나를 대적해 거절하고 내 사랑의 비추임을 거절한 수 많은 영적인 존재들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도 모든 행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도 끝 없이 나로부터 멀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자유의지였다. 그러나 나는 이 의지를 존중하여 그들이 다시 자유의지로 나에게 가까이 올 때까지 내 사랑의 비추임을 구할 때까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 된 이제 내 대적자가 된 존재도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갈 것이다. 그도 언젠가는 내 사랑의 비추임을 그리워할 것이고 이를 자유의지로 다시 나로부터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비록 영원히 영원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반발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때 나에 의해 능력으로 발출되어 나온 모든 존재들은 거절할 수 없이 영원한 능력의 근원인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B.D. No. 8880

1964년 11월 8일

만약에 너희가 위로부터 음성을 들으면, 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는 내 끝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이 사랑은 너에게 항상 계속하여 주어진다. 왜냐면 너희는 내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자유의지로 내 대적자를 따라 깊은 곳까지 갈지만 그러나 너희의 원래의 성품은 사랑이다.

너희가 다시 너희의 원래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위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음성을 통해 단지 선한 세력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항상 단지 너희를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알려주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출처를 너희는 의심할 필요 없다. 이는 단지 선한 내용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 왜냐면 "영원한 진리 자신"이 너희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진리가 너희에게 잘못 된 가르침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 가운데 너희 자신을 맡길 수 있다.

종말의 때에 이런 보장은 아주 필요하다. 왜냐면 심지어 내 진리의 전달자에게도 전달 내용이 진리인지 의심에 빠지게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내 빛이 전달자들을 오류로부터 보호함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분하다. 왜냐면 만약에 나 자신이 아니라면, 누가 순수한 진리라는 보장을 너희에게 해줄 수 있겠느냐? 나는 모든 사람의 진리를 향한 의지와 갈망을 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대적자가 특별히 빛을 전하려는 너희에게 역사함을 말한다. 그는 이를 방해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사람들의 심장에 그들이 받은 것의 진리성에 의심을 심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내 역사도 항상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나는 항상 분명하게 대적자가 이미 침범한 곳에서 오류를 밝혀 낼 것이다. 왜냐면 그의 목표는 너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 스스로 순수한 진리를 열망하는지 점검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속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창조의 순간은 나뿐만 아니라 내 빛의 전달자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일이었다. 왜냐면 그의 의지와 내 사랑의 힘의 작품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졌고 이것들은 우리들을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했고 빛의 전달자의 사랑은 항상 더욱 빛나게 나를 향해 타올랐다. 왜냐면 그들 안에 같은 창조의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창조물로 인해 기뻐하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창조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일을 통해 그들의 축복을 측량할 수 없이 높일 수 있었다

창조된 존재에게는 어떤 부족함도 없이 모두 다 나와 같은 형상으로 생성되어 나왔으며 그들이 내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진 대로 창조하며 조성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전제할 때에 그들이 사랑의 힘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을 때 그들의 일이 저하됐다는 것을 너희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그들의 빛과 그들의 깨달음을 잃어버려서 그들의 생각은 혼돈되게 되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고 자신 안에서 굳어졌다.

그러나 나로부터 한때 나온 능력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종류의 창조물로 변경을 시켰다. 이 과정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자주 설명을 했다. 너희는 이를 가장 순수한 진리로 영접할 수 있다. 너희는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죄였다는 것을 생각할 것 없이 영접할 수 있다. 왜냐면 그들에게 가장 빛나는 빛을 비추어 줬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절로 나타나는 영향력의 범위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빛의 전달자뿐만 아니라 타락한 존재들을 타락하게 했다는 또는 타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모든 설명들을 오류로 깨닫게 만들 것이다. 모든 존재들은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을 거절할 때 까지는 내 의지 아래서 역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적인 실체는 굳어지게 되었다. 내가 한때 존재로 발출시킨 내 능력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야만 했다.

입자로 분해가 되어 작은 가장 작은 입자가 되어 이 입자들로부터 창조물이 생성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존재들은 모든 반발심과 대항해 싸워야 했다. 왜냐면 이들은 자신을 다시 성장시키기 위해 이를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이 하는 일은 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활용하는데 있었다. 이 존재들은 가장 밝은 빛의 상태에 있었고 이로써 깨달음 가운데 있어 단지 내 의지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사용하지 않았다. 존재들이 나에게 진실되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내 의지에 따라 역사하고 창조했다.

존재들이 나를 떠나 갈 때에 그들은 창조하고 조성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그들은 굳어지게 되었고 행함이 없이 남게 되었다. 이로써 창조물들이 생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는 영원 전부터 루시퍼와 존재들이 타락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들을 막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 타락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빛의 전달자 루시퍼에게 같은 모든 능력을 주었고 이 능력을 줄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나 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에게 전적으로 대항하는 세계인 두 번째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존재들이 나를 떠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가 그리고 나중에 그의 추종자들이 내 사랑의 힘의 흐름에 자신을 담음으로써 이 모든 일은 단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이다. 왜냐면 그들은 나 자신으로 출발되어 나왔다는 전적인 깨달음 가운데 나 자신에게 대적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의지 안에서 존재의 생각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나에게서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된 의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면 이것은 영을 어둡게 하는 것이고 영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루시퍼는 내 반대 극이 되었고 모든 악한 생각들의 근원이 그 자신이었고 존재들에게 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들이 나에게 의식적으로 사랑을 거절하는 순간부터

대적자는 이 존재들에 대한 전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루시퍼는 내가 존재들로부터 그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 그리고 귀환을 위한 과정으로 인도하기 위해 창조물을 만들 때까지 그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제 이 존재들은 그들이 인간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그의 모든 잘못 된 생각을 버리고 그의 의지를 전적으로 변화시켜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고통의 길을 오랫동안 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탄적인 것을 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자유의지 가운데 신적인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것 만으로도 이미 악이 내 안에서 근원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를 신적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적이라는 의미는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없고 내 안에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없고 요약해서 내가 내 안의 모든 상반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단지 선한 것을 의미한다.

자유의지가 나를 위할 것인지 또는 내 대적자를 위할 것인지 실제로 결정할 수 있다. 그가 내 대적자가 되었을 때에 이미 악했고 나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을 창조 했다. 나는 나 자신과 같은 권세가 있었고 그는 단지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 내 대적자가 사용하는 가장 악한 속임수는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악한 것들의 출처가 내 안에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였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왜냐면 이를 통해 존재에게 혼동의 상태가 왔기 때문이다. 이 상태 가운데 그들은 내 의지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을 거절했고 이로써 분해가 되어 묶임을 받고 모든 종류의 창조물이 된 것이다.

나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능력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유의지 가운데 이 능력을 다시 요청해야만 하는 것이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육신을 있는 동안에 타락한 자 안에 놓여진 루시퍼의 생각이 원인이 된 죄와 싸워야만 한다는 것이 내 사랑에 의해서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하 내 과정이 되었다.

이로써 사탄은 원하지 않게 이런 귀환의 역사에 참여해 일하게 되었고 나는 이를 영원으로부터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절대로 그를 내 반대의 극으로 정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도 자유로운 존재로서 모든 온전함 가운데 나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처럼 만들려는 계획.

B.D. No. 6336

1955년 8월 19일

내 구원계획은 끝 없이 긴 시간이 요구 된다. 타락한 존재들을 구원하고 한때 그들의 의지를 잘못 된 방향으로 사용했고 이 때문에 창조 된 존재들을 나처럼 만들기 위해 그들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일에 끝 없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들이 스스로 전적으로 나와 반 대로 되었지만 언젠가 다시 내 형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되는 과정은 또는 다시 원래상태로 돌이키는 일은 끝 없이 긴 시간이 요구 된다. 왜냐면 정해진 질서의 법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혼란이 생기고 최종 목표에 절 대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영원한 질서의 기본법칙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타락하여 온전하지 못하게 된 모든 존재에게 사랑을 행할 기회를 주는 일이 단지 나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타락한 존재들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만 했다. 어떤 모양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든,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생성되고 유지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창조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목적에 합당한 창조물을 생각해냈다. 나는 동시에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물을 생성하는데 함께 일하게 했다. 그럴지라도 나는 존재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야만 했다. 나는 내 의지 대로 특정한 형체에 들어가서 이 형체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게 해야만 했다.

섬기는 원칙이 전 창조물을 지배한다. 왜냐면 항상 단지 내 큰 사랑을 나타내는 내 의지가 모든 것을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요 가운데 섬기는 일이 처음에는 필요하다. 왜냐면 어떤 존재도 스스로 섬기려는 사랑을 표현하려는 결단을 하지 않고 그러나 타락한 존재들의 귀환이나 또는 다시 변화되는 일이 내 목표이고 내 목표로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 가운데 섬기는 일은 끝 없이 긴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이미 변화를 일으킨다. 돌이키는 변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즉 처음에 가졌던 나에게 대한 반발심이 줄면, 존재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되돌려주어 강제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섬기는 일을 계속하게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 존재가 스스로 자신 안에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해야만 한다.

전 성장 과정의 목적과 목표는 존재의 의지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그가 생각하고 원하고 행하는 일이 사랑의 원칙에 기초를 두게 하는 일이고 사랑으로 변화 된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는 일을 이루는 일이고 내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둔 목표를 이루는 일이고 창조 된 존재가 자유의지로 내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 내 자녀가 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끝 없이 긴 성장기간 동안 존재가 셀 수 없는 많은 단계를 거친다. 존재는 빛의 상태에서 내 거대한 구원계획을 이해하게 되면, 이 단계를 돌이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단계가 그의 고난과 고통을 알게 해줄 것이고 이제 그가 최초로 온전하게 창조되었다가,

자신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었는지 얼마나 멀리 떨어졌었는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그들에게 내 사랑과 지혜와 권능이 계시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그들의 나를 향한 사랑의 물결이 그들을 엄습하게 되고 내 사랑의 흐름에 전적으로 빠지게 된다. 그들은 나를 끊임없이 찬양하며 칭송하고 내 목표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일에 언젠가 도달하도록 돕고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뜻도 갖지 않게 된다. 그들은 쉬지 않고 사랑을 행하고 그들의 원래의 목적인 내 뜻 대로 창조하고 역사하게 된다. 내 뜻이 이제 그들의 뜻이 된다. 왜냐면 그들이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귀환 계획, 자유의지.

B.D. No. 6497

1956년 3월 10일

내 구원 계획은 능가할 수 없는 지혜로 설계되어 있고 그러므로 확실하게 목표로 인도한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항상 고려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지혜와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의 의지가 완전히 나에게 속하게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이런 계획이 필요로 하게 만든다. 이런 계획은 항상 모든 영적인 존재의 의지에 맞추어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가장 큰 가능성을 열어 준다.

그러나 내 지혜가 항상 의지의 방향을 보았고 그러므로 내 사랑이 항상 이 의지에 따라 계획을 할 수 있었다. 이로써 항상 성공에 도달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항상 또 다시 온전함에 도달했다. 즉 성공적으로 구원의 길을 갔다. 그러나 나는 또한 내가 견뎌야만 하는 많은 실패를 보았다. 왜냐면 그런 실패는 자유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실패가 영원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행하게 만들었고 그러므로 내 구원의 계획이 이미 영원으로부터 정해질 수 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타락했고 그들의 거주지가 된 곳은 끝이 없이 깊은 곳이고 돌아오는 길은 끝이 없이 먼 길이다. 그러나 언젠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들의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들이 그럴지라도 내가 그들을 영원히 깊은 곳에 머물게 하지 않을 존재들이 내 사랑에게 요구하는 일을 나는 영원으로부터 깨달았다. 단지 내 사랑이 그들을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이 한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남김없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영원에 영원이 걸릴지라도 모든 타락한 존재들을 확실하게 돌아오게 해주는 계획이다. 사랑과 지혜와 권세가 한때 나에 의해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생성된 존재의 자유의지를 항상 존중하면서 이런 귀환하게 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사람은 내 구원계획을 잘 깨닫고 이제 어떤 일도 맘대로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일이 내 사랑과 내 의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한 존재를 귀환하게 하기 위한 내 역사와 사역의 전체 범위를 절대로 개관해볼 수 없다. 그는 단지 몇 마디로 한때 타락한 모든 존재들이 전적으로 자유한 가운데 빛과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내 사랑이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는 또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일어나고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의 방향과 모든 성장 단계가 나에게 알려져 있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해 알고 그러므로 그에 따라 이 땅의 삶에서 사람에게 모든 일이 사람 자신이 원한다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일어난다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내 영원한 구원계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절대로 강요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장 유리한 기회도 사용되지 않고 머물 수 있고 존재가 나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존재가 스스로 연장시킨다. 그러므로 한때 타락한 존재의 구속이 일어나는 시간은 자유의지가 결정적이다.

너희 사람들이 너희의 생각과 의지가 자유롭지 않다고 믿는 동안에는 너희는 아직 적게 알고 있다. 이는 너희가 한때 타락한 결과이다. 바로 자유의지가 내가 내 무한한 사랑으로 실제 행하기를 원하는 너희를 갑작스럽게 구원하는 일을 막는다. 그러나 그러면 신적인 존재의 특징인 자유의지가 없게 되고 너희는 영원히 더 이상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고 항상 심판을 받은 항상 내 의지에 의해 정함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이런 일은 내 목표가 아니고 내 신적인 사랑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유의지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들은 아직 영이 아주 어둡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자신의 의지를 그들에게 전가시킨 내 대적자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뜻으로 생성된 영적인 존재에게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주었고 그러므로 존재가 자신을 깨닫고 그를 위할지 또는 나를 위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럴지라도 그는 타락했고 그러므로 그는 자유의지로 스스로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존재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정하는 외부의 권세에 아직 의존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존재는 아직 많이 그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권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강하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연약해진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죽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세주의 도움으로 나에게 귀환하는 일이 더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자유의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원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내 영원한 구원의 계획에 모든 일이 고려되어 있고 내 사랑과 지혜와 전능이 언젠가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원래 영이었던 영이 창조물로 변화가 되는 일.

B.D. No. 8216

1962년 7월 16일

내 말은 너희를 선명하게 해줘야 한다. 너희 스스로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문에 답을 줘야 한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면, 알게 되어야 한다. 너희는 진리에 모두 합당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왜냐면 나는 너희에게 빛을 주고 너희의 영을 밝게 해서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너희 혼이 해를 입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모든 영원에 영원을 위해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 아주 큰 사랑은 항상 단지 너희의 혼의 구원을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가 돌아오기를 너희의 혼이 완성에 도달해야만 이를 수 있는 너희들과 연합이 되길 내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때 나에게 의해 모든 온전함으로 생성되어 나왔다. 나는 너희를 내 형상으로써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써 나 자신의 축소물로 그럴지라도 너희는 원래의 사랑에 의해 생성되었고 이 사랑이 자기 자신을 부여줄 수 있기 위한 그릇으로 모든 창조된 존재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끊임없이 흘려 줄 수 있기 위한 그릇으로 너희를 창조해 너희의 원래의 요소가 사랑이기 때문에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 내 형상이었던 이런 존재들은 전적으로 사랑이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실제로 서로 간에 인식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들 자신을 생성되어 나오게 한 나 자신은 내가 사랑의 힘의 근원이며 사랑의 힘의 총만함 자체이기 때문에 만일 나를 본다면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는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힘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주 설명한 것처럼 나는 그들을 가장 작은 불씨로써 자립적인 존재로써 생성되어 내 밖에서 존재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성되게 한 순전히 영적인 과정을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은 모두 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는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자립적인 피조물으로써 계속하여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능력과 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의지의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나를 거절하고 나를 떠남으로 그들의 의지를 잘못 사용하였을 때 나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의해 창조된 그들이 볼 수 있었고 모든 아름다움으로 가장 밝은 빛을 비추던 존재인 루시퍼에게 향했고 계속하여 빛과 능력의 근원인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내 사랑의 힘의 비추임을 거절했다. 내가 너희 사람들에게 이 과정에 관해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항상 또 다시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오는 피조물들이 실제로 그들의 성품을 반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소멸될 수 없고 계속 존재하고 영원히 계속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존재들의 원래 성분이 사랑이어서 그러므로 영원한 법칙에 따라 역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영원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머무를 수 없는 능력이다. 내 사랑의 비추임을 거절한 결과로 항상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통해 내 의해 창조된 원래의 영의 영적인 입자들은 굳어지게 되었다.

이 존재들은 그러므로 역사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원래의 영들을 분해하여 즉 한때 존재로 생성되어 나온 능력을 내가 변형시켜서 그들이 능력 안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창조물들이 생성되게 하여 내 의지에 따라 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창조물들을 내 의지 의해 변형된 원래의 영이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존재의 형태로 내가 발산한 같은 능력이 이제 모든 종류의 창조물로 변화되어 다른 형태를 갖게 된 것이라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모든 창조의 작품들에게 그들 각자의 사명을 주었다. 이렇게 원래의 영이 분해가 된 입자들이 이제 다른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무의 법칙에 따라 나를 섬기고 내 의지에 따라 섬기는 일을 한다. 왜냐면 능력은 원래의 법칙에 따라 역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음을 생각하라. 원래의 영적인 존재들은 그들이 이제 분해가 되었거나 또는 다시 끝 없이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가 되었던지 간에 나로부터 발산되어 나오는 능력이었다.

원래의 존재는 소멸되지 않고 존재는 언젠가 거절할 수 없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그러면 그들은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을 때와 같은 존재가 된다. 존재는 나에게 돌아오는 길 가운데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존재는 마지막으로 인간의 형체 안의 인간의 혼으로써 다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어야만 하는 의식적으로 내 사랑의 비추임을 영접해야만 하는 짧은 마지막 길을 가게 된다.

왜냐면 자유의지로 나에게 귀환하는 것은 원래의 영이 내 사랑의 힘의 비추임에 대한 거부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존재는 다시 내 형상인 하나님과 같은 피조물이 된다. 존재는 모든 온전함으로 창조되었고 타락했던 원래의 영이었고 이제 자유의지로 다시 온전함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는 이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고 영원히 이제 나와 연결된 상태로 남게 된다.

아멘

창조물 안의 존재의 느린 성장 과정

B.D. No. 8702

1963년 12월 17일

다음을 받아들여라: 한때 내가 존재로 발산시킨 힘을 여러 종류의 창조물로 변화시켰고 이런 존재가 분해된 상태에서 느린 성장 과정을 시작했다. 영적인 입자가 내 의지에 의해 압축이 되어 물질이 되었을 때 서서히 형체를 입은 영적인 입자들에게 이런 일이 초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요동이었다. 이런 물질들은 아주 많은 서로 다른 종류였고 너희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게 해줄 수 없다.

내가 내 사랑과 지혜로 한때 나로부터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위해 창조물 안에서 성취될 구원계획을 세웠다.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섬기도록 자극해주는 일이 내가 창조한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창조물은 서로를 필요로 해야만 하고 이로써 느린 성장 과정이 가능하게 된다. 창조물의 초기에 섬기는 기능을 너희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게 해줄 수 없고 창

조물이 이미 굳은 형체를 입었을 때 비록 이런 창조물들 안에서 아주 작은 일을 행하기 시작한다.

모든 활동은 생명을 증거하고 모든 활동은 변화를 가져와 형체들이 계속하여 변화되어 항상 더 큰 창조물로 발전해 나가고 내 의지가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고 내 뜻대로 실행하게 된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내 뜻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조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뜻에 의해 창조 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나 또는 형체가 된 힘이 느리게 성장하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저항이 서서히 줄어들게 하고 이런 일이 비록 내 의무법칙에 의해 일어나지만 섬기는 일로 나타나고 저항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로써 광물과 식물과 동물의 세계를 거쳐 인간의 단계에 이르는 성장 과정을 너희에게 설명한다. 이런 과정이 계속하여 걸형체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존재들이 다시 모여 더 큰 형체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섬겨서 타락한 원래의 영에 속한 모든 입자들이 다시 모여 이제 인간 안의 혼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같은 성장 정도에 도달한 작은 생명체와 가장 작은 생명체들이 죽은 후에 모여 더 큰 걸형체를 입게 되고 성장 과정을 계속 하게 된다. 내 사랑과 지혜로 항상 특정한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형체가 창조 된다. 너희는 자연 가운데 작은 생명체에서 항상 점점 더 커지는 생명체로 성장하는 일을 본다.

그러나 내가 먼저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형체를 새롭게 창조해야만 했다. 이런 형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이 전의 형체와 유사하는 되는 일은 항상 내가 창조한 역사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관찰할 수 없었다. 왜냐면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직 이 땅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영원한 계획은 정해졌고 그러므로 나는 인간으로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치르게 위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피조물을 이미 알았다.

그러므로 아직 여러 종류의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항상 새로운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각각의 피조물이 자신의 영적인 입자를 성숙하게 만들수록 창조물은 항상 더 커졌다. 이를 신체가 커지는 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생명체의 특성들과 그의 기능들과 그의 능력들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내 끝없는 사랑과 지혜와 권세의 작품이었고 그들은 번식하지만 그러나 창조물은 항상 내가 창조했을 당시의 상태로 머문다.

어떤 생명체도 자신의 특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 너희가 변화나 또는 계속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 역사는 생명체가 생성되었을 때 내가 창조한 역사였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인간과 유사한 모든 존재들도 항상 새로운 창조물이었고 그들이 내 전능한 능력의 작품으로 창조 된 상태로 머물렀다. 이런 창조물들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항상 더 성장해 나갔기 때문에 내 의지를 통해 항상 점점 더 인간에 유사한 걸형체가 창조되었다. 그러나 이런 창조는 항상 내 의지에 기초한 역사였고 이런 역사가 자연의 법칙으로 나타난다. 너희 사람들은 이를 존재가 자연적으로 높이 성장하는 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절대로 인간을 이런 자연적인 성장의 결과물로 여길 수 없다. 왜냐면 인간은 내 전능함과 사랑과 지혜로부터 나온 고유한 창조물으로써 이 땅에서 높은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아주 똑똑한 짐승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원하는 존재로 양육하려고 할지라도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짐승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인간이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생각할 능력과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할 능력과 이성과 자유의지를 절대로 서서히 갖추게 할 수 없고 이런 생각할 능력과 이성과 자유의지가 한 피조물이 서서히 성장해나가는 특성이 아니고 인간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내 의지와 내 권세로 생명으로 생성한 고유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창조의 작품인 인간은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들이 이미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느린 성장을 마쳤을 때 비로소 세상으로 보낼 수 있었다. 왜냐면 인간은 타락한 원래의 영을 혼으로 이제 자신 안에 거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장이라는 말은 항상 단지 모든 창조물 안에 거하거나 또는 위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해당 된다. 반면에 물질적인 창조물은 항상 창조의 역사로 여겨야만 한다. 왜냐면 내 의지가 이런 걸형체를 존재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물질적인 창조물이 걸형체로써 영적인 존재를 섬기고 섬기는 일을 통해 자신이 높은 곳에 도달해야 한다.

피조물이 아직 자신 안에 인간과 같이 영적으로 성장한 존재를 자신 안에 담고 있지 못하는 동안에는 내 뜻은 어떤 피조물도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의미하고 성장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성장했다는 주장은 절대로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왜냐면 인간 자체가 내 의지와 내 사랑의 힘이 생명으로 생성되게 한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아멘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B.D. No. 5800

1953년 10월 31일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높이 성장하기 위해 끝없이 긴 시간이 필요했다. 내 각각의 창조물들도 역시 끝없이 긴 시간이 필요했고, 동시에 항상 더 성숙한 영적인 존재가 자신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내 창조물 안에서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해야만 했다. 항상 또 다시 새로운 형체가 창조되었고, 이런 형체에게 항상 또 다시 사명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 땅의 창조물은 순간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성장정도를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걸형체를 찾을 때까지 무한하게 긴 시간이 소요됐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항상 성숙하게 되는 일이 항상 또 다시 영적인 존재를 받아드릴 새로운 창조물을 필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의무의 단계에 있는 동안에 내가 창조하는 일은 가장 깊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위해 성숙할 장소로서 이 땅을 창조하는 일을 의미했다. 영적인 존재가 성장해야 할 장소에서 존재가 한때 잘못 사용하는 자유의지를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돌려줘야 하는 성장을 이뤄야 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하게 된 영적인 존재를 위한 형체가 창조되어야만 하고, 이로써 창조된 형체 안에서 성숙하게 된 영적인 존재가 자유의지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런 창조물이 인간이고, 인간이 자유의지에 더하여 이성과 이해력을 받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을 의식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일이 의지를 시험하는 일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의 이웃과 언어를 통해 교통할 수 있는 점에서 인간은 이 전에 생성된 창조물과는 다르다.

인간의 걸 형체는 이미 의무 상태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무수히 많은 성숙한 혼의 입자들을 받아드리도록 정함을 받았다. 그러나 인간의 걸 형체의 생명체는 아직 의무의 단계에서 자연의 법칙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고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 생명체는 아주 적게 생각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끝없이 긴 성장기간에 걸쳐 성장해 온 영적인 존재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고, 생명체는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내 지혜와 사랑이 형성한 창조의 작품이다. 그러나 단지 자유의지와 이성과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소유한 인간을 비로소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피조물을 영화시키는 계획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런 존재들인 사람들이 내 가르침을 받는 일이 필요했다. 그들은 이런 내 가르침대로 그들의 생각할 능력과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야 하고,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로 살고 창조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내 가르침들과 내 뜻을 거역하고, 그들이 올라선 깊은 곳으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었다.

나는 인간을 창조했고, 어느 정도의 영적인 성장정도에 도달한 영적인 존재에게 내 지혜와 내 사랑에 합당하게 걸형체를 부여했고 또한 인간이 이제 성취시켜야만 하는 과제를 부여했다. 무수히 많은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이제 혼으로써 형체에게 생명을 부여한 영적인 존재

가 걸 형체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걸형체가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는 끊임없이 활동하는 힘이고, 실제 예비 단계인 끝없이 긴 성장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묶여 있었고, 제한이 없는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걸 형체인 인간 안에서 영적인 존재가 다시 행할 수 있고, 자신이 소유한 힘을 확장시킬 수 있고, 나와 의 연합을 통해 자신의 힘을 무한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없게 내 힘이 제공됐고, 그들은 특별하게 힘을 받았다. 왜냐면 그들의 이 땅의 시험의 삶이 그들이 완전히 영화된 상태로 세상의 걸형체를 벗고, 진정한 자녀로서 그들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모든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의지의 시험을 거쳐야만 했다. 최초의 인간이 이런 시험을 통과했다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쉽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1953년 11월 1일) 최초의 사람들이 나를 떠남으로 인해 온전하지 못하게 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안에 존재를 창조했고, 그들 자신을 피조물로 인식한 존재들은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하는 힘과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 내 뜻을 깨닫고 수행할 수 있었다. 나는 나와 떨어진 거리가 멀지라도 이전의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인,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게 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때 타락한 원래의 영을 자신 안에 지닌 최초의 이 땅의 창조물이었다. 인간은 이제 원래 영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야 하고, 또한 자신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이로써 그가 다시 자유로운 영적인 존재로서 나와 영원이 하나가 된 가운데 나와 함께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런 일이 처음으로 창조된 인간의 과제였고, 이 과제는 종말의 때까지, 타락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완전히 영화되기까지, 모든 인간의 과제로 머문다.

첫 번째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의지의 시험은 특별히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험을 위해 내 대적자에게 그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권리를 부여해야만 했고, 인간이 이 영향에 굴복했다. 그는 두 번째로 나를 떠났고, 이 일은 이 땅의 첫 번째 타락이었고, 비록 사람들이 한때 나를 떠난 영의 타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지라도 인류는 이 땅의 첫 번째 타락을 알았다. 그러나 영의 타락이 비로소 모든 것을 설명한다. 최초의 사람이 나에게 의해 첫 번째로 존재하게 된 힘과 빛을 전적으로 소유해야만 하는 창조물이었다면, 타락할 수 없었다. 왜냐면 나로부터 온전하지 못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그러면 어떤 대적하는 세력도 그에게 역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유를 영들의 타락에서 찾아야만 한다. 따라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인간의 혼에게서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 혼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는 있었지만 합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은 실제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또한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만 했고, 내 대적자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일은 모든 사람이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을 위해 싸움과 고통이 함께 하는 고된 이 땅의 삶의 과정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타락으로 연약해진 인류를 돕기 위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

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를 자원하여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람이 그의 모든 후손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는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의 나라로 향하는 다리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오랫동안 사탄의 속박 아래 머물러야만 했다.

(1953년 11월 2일) 내가 첫 번째로 창조한 존재인 루시퍼에게 요구한 의지의 결정은 절대로 계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였다. 그가 가진 의지의 방향은 유일하게 권력과 혼자서 지배권을 가지려는 갈망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나에게서 생성되었다는 것을 실제 의식했지만, 그가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출처로 깨달았지만,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의지를 존재 안에 넣어주지 않았고, 존재가 스스로 내가 준 자유의지로 변화가 되었다. 이 점이 루시퍼의 첫 번째 타락과 첫 번째 사람의 타락 사이의 차이였다. 인간은 자신 안에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그가 어기지 말아야 할 계명을 주었고, 대적하는 영이 인간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쉽게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직 대적자의 일부였고, 인간이 타락을 불가능하게 만든 완벽함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자가 인간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은 타락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즉 인간이 계명을 어길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안의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모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막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의 타락의 결과로 비로소 창조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둘러싸고 있는 걸 형태로 영적인 존재를 감싸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형체 안에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거하고 있고, 따라서 인간 아담은 이미 한때 지은 죄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내 계명에 순종했다면, 그는 죄를 물리칠 수 있었고, 그가 유전된 죄짐을 갚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타락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다시 나에게 돌아 오는 일을 끝없이 지연시켰지만, 그러나 인간 아담이 해야 할 내 의지를 전적으로 따르고,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통해 나와 다시 전적으로 연합하고, 힘과 빛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일을 내가 주는 계명이 없이 행한, 인간 예수의 구속사역을 통해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다시 나에게 돌아 오는 일이 가능해졌다.

아멘

원래의 영의 자기 의식.

B.D. No. 7569

1960년 4월 5일

 든 원래 영은 그가 인간으로써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인간으로 깨달으면, 자신을 의식할 것이다. 그러면 창조물 안에서 귀환의 과정을 위해 분해되었던 모든 혼의 입자들이 그 안에 모인다. 그러면 존재는 원래 초기에 창조된 영으로써 소유했고 버렸던 성장 정

도를 이제 다시 빛의 존재로써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다시 얻어야만 하는 그의 성장 정도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육신을 입은 원래의 영이고 한때 타락했던 존재이고 내 끝없는 사랑이 창조한 작품이고 그가 단지 자유의지로 스스로 나를 떠났고 그러나 다시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가 무엇이었는지 그가 무엇인지 무엇이 되야 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이런 지식을 얻고 이해할 수 있게 되려면, 그 전에 그가 먼저 어느 정도의 성장 정도에 도달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는 실제 자신을 인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정해진 일을 성취해야 할 영적인 존재로 깨닫는다. 그가 자신을 단지 이 땅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이 땅의 세상을 더 많이 향한다. 이는 대부분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데 방해 된다. 영적인 깨달음은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나 영의 나라를 추구할 때 주어진다.

그러면 그에게 자신이 실제 정함받은 일에 대한 지식이 제공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는 이제 자유의지로 영접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주는 것에 자신을 드린다. 그러나 그가 언젠가 이 지식을 영접하면, 그가 내가 피조물로 창조했고 내 자녀로서 나에게 돌아와야 하고 인간으로써 완성 직전 있는 원래의 영에 속한다는 생각과 확신이 그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단지 사람의 의지가 선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의지가 스스로 나에게 향한다.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의지가 이미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다. 원래의 영은 이 땅의 인간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의지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기간은 긴 기간이 아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사람이 전적으로 영화되기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에는 실제 충분하다.

다시 말해 원래의 영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최고의 정도로 이르게 하는 온전한 상태로 다시 되는 것이고 이제 내 가장 가까이에서 거할 수 있는 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비추임이 보장되는 온전한 상태로 다시 된다. 다른 모든 원래의 영이 한번 빛의 나라에 들어서면,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올바른 의지의 결정을 먼저 했어야만 하고 항상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다.

원래의 영들이 최고로 높은 빛의 충만함에 도달하기 위해 측량할 수 없이 복되기 위해 얼마나 끝 없이 긴 기간을 지나 왔는지 의식하면, 모든 원래의 영들은 넘치게 축복될 것이고 그들은 나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원에까지 나를 칭송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떠나지 않는 자신의 축복을 위해 내 뜻대로 창조하고 역사하는 내 자녀가 되고 자녀로 남을 것이다.

아멘

타락한 원래의 영들의 끝 없이 긴 과정.

B.D. No. 7824

1961년 2월 13일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 과정은 끝 없이 긴 기간이 걸린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굳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을 수 있기까지 저항이 아주 크고 영적인 존재들이 분해되

기까지 이미 끝 없이 긴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물질적인 겉형체는 부드러워지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이 통과해야만 하는 형체는 끝 없이 많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창조의 작품이 영적인 존재가 분해 된 입자 안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기 때문이다. 이를 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언젠가 혼의 구성 안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성장이 지속이 될수록 더 빠르게 영적인 존재들은 각각의 형체를 벗어 날 수 있다. 왜냐면 혼으로써 마지막 형체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마침내 모든 타락한 원래의 영의 입자들이 다시 모일 때까지 영적인 입자를 감싸고 있는 형체가 항상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성장의 과장에 이미 소요 된 기간은 실제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 이 기간도 끝이 난다. 혼은 언젠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고 자유의지를 돌려받는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한다. 그러나 인간으로써 마지막 기간은 이 전의 모든 창조물을 거친 기간과 비교하면, 단지 눈 깜짝할 사이와 같다.

그러나 한때 타락한 원래의 영은 그가 한 때 그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던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인정하는 결정하게 요구받는다. 진실로 사람들이 올바르게 자유의지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의지는 강요받지 않는다. 그는 이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동안 다시 그가 한때 깊은 곳까지 따랐던 하나님의 대적자의 대응을 받는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다시 한때 자신의 추종자들을 자신을 위해 소유하기 위해 사람들에게서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거나 파괴시키려고 시도한다. 사람은 도움이 없게 되지 않는다. 왜냐면 창조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혼을 얻기 위해 싸우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의 끝없는 사랑이 사람을 다시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진실로 사람들이 결정하기 쉽게 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 그는 모든 방식으로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사람에게 계시하고 지식을 전한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그는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의 성장에 도달하여 올바르게 결정하는 일이 그에게 가능하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항상 또 다시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사는 짧은 시간 동안 원래의 영이 모든 형체로부터 전적으로 구속받는 일이 가능하다.

왜냐면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의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구속사역이 그를 위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 자신과 그의 뜻을 깨닫고 올바른 결정을 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헌신하고 그에게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고 자신의 원죄를 용서해주기를 구하고 그의 이 땅의 과정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을 구하는 일이다.

그는 진실로 그의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그는 한때 자신을 생성되어 나오게 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것이다. 왜냐면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믿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이 없이는 그는 자신의 형체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될 것이고 성장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그는 그가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 도달하여 올바른 결정을 하기까지의 기간을 다시 끝 없이 길게 연장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기간이 된다. 그러나 짧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뒤 따르고 그의 길을 짧게 해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존재는 단지 자신의 저항을 포기하고 그를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는 모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사역에서 나타난다.

B.D. No. 7575

1960년 4월 12일

내 사랑은 너희 모두에게 임한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너희가 이 사랑을 거부할지라도 너희를 뒤따를 것이다. 이 사랑은 영원히 영원까지 너희에게 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너희가 다시 나에게 속하게 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었을 때 내 큰 사랑과 긍휼을 너희 모두에게 증명했다.

왜냐면 비록 내 피조물 자신이 나에게 귀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지만 이런 가장 큰 사랑의 역사가 나에게 타락한 자들을 돌아오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 돌아오길 갈망할 것이다. 나는 언젠가 내 피조물들의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피조물들은 나와 같이 축복될 것이다.

피조물들은 내가 내 자녀를 찾은 것처럼 아버지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 구속사역이 필요했다. 내 사랑이 가장 큰 역사를 이뤄야만 했다. 사랑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왜냐면 단지 이를 통해 내 피조물인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 아버지인 나와 분리되게 만든 큰 죄를 사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큰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내 사랑이 이 대가를 치렀다. 내 사랑이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했다. 내 사랑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 사람들은 이런 긍휼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했던 사람이 이 땅에서 긍휼의 역사를 완성했다. 이 사람이 내가 위로부터 이 땅에 보내 그가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이다.

그는 내 창조의 능력으로 생성되었고 그의 나를 향한 사랑은 측량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었다. 이런 사랑이 그가 구속역사를 이루게 인도했다. 왜냐면 그가 이웃들의 위험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이웃들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막는 원죄의 짐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축복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죄는 아주 컸다. 나는 공의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만 했다. 인간 예수가 아주 큰 사랑으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나는 이 제안을 영접했다. 왜냐면 나는 사랑을 막길 원하지 않았고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이 행하는 것은 항상 내 앞에 내 눈 앞에 올바르게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이 땅의 과정을 갔다. 그의 삶은 사랑이었고 그는 이 사랑을 항상 더 높였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그를 전적으로 모두 채우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었다. 왜냐면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밀을 너희 사람들은 절대로 알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과 나 자신이 전적으로 모두 인간 예수 안에 거했다는 것으로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즉 형체가 단지 인간이었고 그러나 그의 모든 성품은 하나님이었다. 왜냐면 그의 성품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랑이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게 했다.

예수가 견뎌야만 했던 이런 아주 큰 고통은 단지 사랑이 감당할 수 있었다. 왜냐면 사랑은 능력이고 인간 예수로 하여금 끝나기 전에 쓰러져 죽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런 정도의 고난을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아주 고난이 충만한 이 땅의 과정을 의식하면서 항상 그 앞에 놓여 있는 시간을 의식하면서 갔다.

그는 자주 실패할까 봐 구속사역을 실행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사랑이 그에게 항상 또 다시 새롭게 능력을 제공했다. 왜냐면 사랑은 나를 떠나 타락했던 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모든 내 피조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성품이 원래 초기에 너희가 가졌던 것처럼 전적으로 사랑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내가 인간이 된 비밀을 절대로 남김 없이 헤아려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그가 나와 하나였다는 것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나를 부르는 것임을 믿는 법을 배우게 한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한때 인정하길 거부했던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너희를 한때 생성되게 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이런 귀환이 이뤄질 때까지 너희를 뒤따를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내 사랑에 응답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내 사랑은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랑은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너희가 내 비추임에 너희 자신을 열 때까지 이로써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귀환하고 영원히 축복받을 때까지 너희에게 비취질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원죄의 사함.

B.D. No. 7748

1960년 11월 17일

내 너희를 향한 큰 긍휼로 나는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내가 생성되게 한 존재들이 나를 대항해 죄를 졌다. 창조 된 존재들을 넘치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요구했던 결정해야 할 때 단지 창조 된 존재의 일부분 만이 나에게 남았다. 그들은 나를 보기를 원했다. 그들이 나를 보았다면, 거대한 빛의 충만한 때문에 존재들이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존재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내가 내 형상으로 첫 번째로 생성 된 존재에게 향했다. 그러나 존재들에게 깨달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떠나 그 존재에게 향

했다. 여기에 바로 그들이 깊은 곳으로 떨어진 큰 죄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상태를 긍휼히 여겼다.

이제 타락한 영들이 처해 있는 빛이 전혀 없는 존재들을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들을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내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영원히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들을 나는 긍휼히 여겼다. 한때 존재들을 창조한 일은 사랑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그들을 깊은 곳까지 따라갔다. 내 끝없는 사랑은 타락했지만 나에게 속한 존재들에게 중단되지 않았다.

왜냐면 존재들은 내가 첫 번째로 창조한 존재인 루시퍼에게 쉬지 않고 흘러갔던, 그로 하여금 수많은 존재들을 창조할 수 있게 만든 내 능력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존재들은 나에게 속했다. 그러나 존재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죄를 졌다. 존재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내 대적자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나는 이런 타락한 존재들의 운명을 긍휼히 여겼다. 나는 어느 주인에게 속하게 될지 의지의 시험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깊은 곳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제공하기 원했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연약하게 된 존재들은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끝 없이 긴 기간이 지난 후에 자유의지를 다시 돌려줬다면, 그들의 의지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존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겼다. 존재들의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한때 지은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얻은 능력을 연약한 자들에게 주기 위한 구속 사역을 하게 했다.

타락한 존재들을 향한 내 긍휼은 아주 컸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죄짐을 짊어지고 속죄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속죄의 역사는 자신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속죄를 행할 자세를 천명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그의 사랑의 역사는 아주 고통이 충만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최고에 달했다. 인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실제 죄 사함을 이룬 분이다.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의 큰 권세였다.

나는 모든 능력으로 인간 예수 안에서 역사할 수 있었다. 그가 행하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랑에 의해 정해졌다. 그러므로 사랑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것이다. 이 사랑은 인간의 형체 안에 있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고난을 당했다. 사랑이 긍휼히 여겼고 사랑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큰 죄짐을 해결했다. 사랑이 긍휼히 여겼고 사랑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 주었다. (1960년 11월 17일)

사랑만이 단지 유일하게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면 공의는 내 성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하면, 내 온전함에 의문이 제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의 때문에 내가 내 피조물들을 다시 내 빛과 축복의 나라로 영접하기 전에 큰 죄가 해결돼야만 했다. 사랑이 자신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안에 거하는 길을 찾았다.

사랑 자신이 큰 죄짐을 짊어지고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일을 자원해 맞이하게 했다. 그 안에 영원으로부터 사랑인 나 자신을

담고 있는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갔다. 단지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단지 큰 공홀만이 나로 하여금 아주 크게 불행하고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는 내 피조물들을 영접하게 했다.

왜냐면 대적자는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자기를 깊은 곳까지 따랐기 때문에 존재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런 그의 권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은 나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 싸운다. 나는 그들의 의지가 강하게 되게 도와 그들 스스로 이제 자유롭게 되려고 시도하게 한다.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 얻은 은혜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인간 예수는 나 자신을 자기 안에 받아들였다. 그는 사랑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했고 내가 전적으로 모두 그에게 충만하게 비추어 그가 단지 자신 안의 사랑이 제시하는 것을 원하고 행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구속사역을 실행한 것이다. 왜냐면 인간 예수는 전적으로 내 의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와 나는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단지 그의 겉형체가 사람들의 눈에 인간으로 보인 것이다. 그러나 겉형체는 영화되었고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까지만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단지 인간 예수만이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속죄하기 위해 그가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죄가 측량할 수 없게 컸기 때문에 그의 고통과 고난은 형용할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하는 구속사역의 은혜를 영접하는 나를 믿고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셨다.

B.D. No. 8331

1962년 11월 18일

인간 예수의 이 땅의 삶은 쉬지 않고 섬기는 삶이었다. 왜냐면 그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해 사람들이 사랑의 삶의 축복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길 원한다. 그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왜냐면 빛의 나라로부터 그의 혼이 이 땅에 임했던, 그가 이 땅에 사랑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는 원죄의 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원죄는 존재들이 전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 그들이 자신들의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의 비추임을 거절한 일이다. 예수는 아버지와 가장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의 사랑의 비추임을 받아 이 사랑을 이 땅에 가져왔다. 그의 사랑의 힘으로 그는 사랑이 없는 일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는 사람들이 어두운 영으로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므로 전혀 사랑이 없고 그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자에게 전적으로 빠졌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위험을 공홀히 여겼다. 그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사랑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그의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섬겼다.

그는 병든 자를 치료했고 그들을 연약함과 장애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 그들이 단지 사랑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면서 영적인 고난을 감당했다.

왜냐면 그는 타락한 형제들의 원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 했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해야만 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사역은 단지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의 삶을 통해 그들이 다시 그들의 원래의 성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단지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쉬지 않고 가르쳤고 그의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그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었다.

너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야 한다. 너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어느 정도의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 왜냐면 예수의 이 땅의 과정은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전에 이미 어떠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고 그럴지라도 자유의지로 이 길을 갔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아주 큰 속죄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위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이다. 이런 속죄는 단지 특별한 고난의 길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이 길을 진실로 인간 예수가 갔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랑이 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의 육체 안에 영원한 사랑 자신이 거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사랑으로부터 능력을 계속하여 받았다. 이 사랑이 그에게 구속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있었다. 그의 혼의 빛의 혼이었다. 단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입자들을 담고 있는 육체만이 이 땅에 속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사랑의 삶을 통해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의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육체를 영화 시켰다.

그는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이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아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면, 그의 도움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랑을 행할 수 없고 고난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원죄가 그들을 아직 누르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을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만든 대적자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려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아래 가져 가고 그에게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한다. 왜냐면 그는 인간 예수가 그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제한 은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의 혼은 사랑과 고난을 통해 성장할 것이다.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혼은 이제 모든 불순물을 버릴 수 있다. 사랑과 고난이 이런 일을 이룬다. 예수님의 관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는 십자가를 지는 자로써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너희는 그를 따라야 한다. 그는 자신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부터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능력을 얻었다.

너희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의 사랑과 그의 능력을 요청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육체의 걸형체 안에 거한 영원한 사랑 자체이고 이 걸형체를 전적으로 영화 시켰고 육체를 충만하게 비추어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한때 창조 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존재들에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사랑을 통해 자신을 그거 원래 초기에 가졌던 상태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는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완성시켜야만 한다. 그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도피처로 삼을 때 그를 뒤 따라 사랑과 고난의 길을 갈 때 그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멘

이 땅의 삶의 목적은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이 이 땅의 삶의 목적.

B.D. No. 4933

1950년 7월 13일

내 뜻을 아는 지식 안에 이제 또한 너희의 삶의 과제가 들어 있다. 너희의 삶의 과제는 너희를 나의 성품과 닮게 하기 위해, 너희가 내 가까이에 거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사랑의 광채 속에서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원래의 성품을 다시 덧입기 위해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하는 일이다. 사랑으로 형성하는 일은 피할 수 없게 빛의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 즉 지혜와 힘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일어나게 한다. 이 땅의 삶은 단지 자유의지로 이런 변화를 이루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지만 반드시 성취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항상 이 땅의 삶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는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또한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단지 자신의 성품의 변화이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시작할 때 존재는 단지 적게 이웃을 향한 사랑을 알고 그가 이 땅에서 극복해야 할 자기 사랑이 가득하다. 극복하는 일은 이 땅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의 과정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런 변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삶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과 이 땅의 삶이 그의 육체에 제공하는 육체적 쾌락을 아직 얻으려고 추구하는 사람과 죽음 후의 삶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가난하게 되고 그가 자유의지로 사용하지 않은 기회를 전적으로 후회하는 가운데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땅으로 육신을 입기의 시작한 때와 같은 성장 정도를 유지하거나 만약에 그가 자신의 충동과 욕망이 이 땅에서 제한이 없게 발산되게 하여 이로써 다시 나의 사랑의 계명을 어긴다면, 즉 나와와의 간격을 증가시킨다면, 그의 성장 정도가 퇴보한다.

나는 인간에게 온전하게 되고, 높이 성장하도록 이 땅의 삶을 주었다. 이 땅의 삶이 그에게 최고의 성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가 활용하지 않은 이 땅의 삶과 그가 받은 선물을 무시했거나 또는 새롭게 죄를 짓는 일에, 나를 다시 떠나 타락하는 죄를 짓는 일에 잘못 사용한 일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져야만 한다.

아멘

성품의 변화. 잘못 된 사랑에 맞서 싸우라.

B.D. No. 6557

1956년 5월 29일

이 땅의 삶에서 너희의 가장 큰 이득은 나와 연합하는 일이다. 너희는 나와 연합하는 일을 너희의 목표로 여겨야만 하고 너희가 나와와의 연합을 이룰 때까지 너희가 쉬는 일을 허

용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연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나를 믿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가 이제 연결을 이루기 원하는 존재로서 나를 깨달아야만 하고 너희의 성품을 내 성품과 같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소원이 처음에는 아직 내 대적자에게 속했던 의지가 나에게 향했다는 증거이다.

너희가 이제 나를 생각하면, 너희는 의식적으로 너희를 나와 연결시킨다. 그러나 올바른 연결은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과 너희의 성품을 내 성품에 적응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면 내가 단지 온전한 존재와 연합할 수 있고 너희가 이런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너희 자신을 형성시켜야만 한다. 왜냐면 내 원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생각으로 나와 연결을 이루고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에게 힘이 제공된다. 너희는 이 힘으로 너희의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너희의 의지는 이제 나에게 속하고 그러므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인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내 대적자에게 속하는 일이 동시에 내 사랑의 힘에 대한 저항과 거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면 비로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 일을 위해 내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 힘은 사랑의 빛이고 사랑의 빛은 다시 사랑을 행하는 일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가 이제 사랑을 행하면, 너희는 이 힘에 대한 권리가 있고 나 자신을 너희에게 더 가까이 이끌게 된다.

나는 그 자체로 사랑이고 그러므로 나와 연합은 사랑이 사랑과 합쳐질 때 단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없이는 어떤 사랑의 역사도 성취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면, 비록 너희가 생각으로 나와 연결을 구하지 않을지라도 사랑 속에 살 때 무의식적으로 나와 연합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너희 안에 떠오를 것이고 더 이상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축복될 수 있기 위해 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인정해야만 하는 일이나 자신이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 왜냐면 그가 사랑을 행하기 때문이다. 즉 그가 내 힘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합을 이루는 일은 자기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 어렵지 않다. 반면에 자기 사랑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일을 막는 사람이 이런 연합을 이루는 일은 어렵다. 내 대적자가 그런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주는 사랑의 빛에 접근할 수 없고 나는 아직 그런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사람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의지를 드러 나와 연결을 이루지 않는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직 그의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로써 나 자신이 그와 연합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저세상에서 그가 다른 생각을 하도록 인도하는 일이 또한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자기 사랑에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혼들의 고통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가 절대로 도움을 주려는 의지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가 절대로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한 사랑에 대항하는 싸움이다.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한 사랑이 먼저 성품이 변화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 완전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화돼야만 한다. 단지 이런 시도를 하는 곳에서

나는 내 힘으로 돕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나와 연결을 이루고 영원히 나와 연결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된다.

아멘

생명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 큰 책임감.

B.D. No. 7241

1958년 12월 30일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너희 혼을 위해 헛되게 살지 않은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을 돌아볼 수 있게 노력하라. 혼이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고 혼이 마지막에 가서 그의 성당 과정에서 진보를 나타낼 수 있게 노력하라. 삶은 단지 짧고 영원은 끝 없이 길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성장 정도에 합당하게 만들어진 나라에 들어간다. 이 나라는 묘사할 수 없게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가장 깊은 어두움에 빠지고 너희의 상태가 아주 고통이 심하면, 음산하고 음침할 수 있다.

너희는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어 너희 스스로 영원의 세계에서 너희를 기다리는 상태와 운명을 만들 수 있다. 너희는 아직 너희가 너희 혼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랑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랑을 행할 능력이 너희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육신이 죽을 때에 너희의 삶의 능력을 잃는다. 그러면 너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저세상에서 행하지 않았던 사랑을 다시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너희는 이 땅에서 하지 않은 것을 저세상에서 하겠다는 생각으로 너희를 안심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사람들이나 또는 빛의 존재들이 너희에게 쥐야만 하는 사랑의 증보 기도의 도움에 의존 된다. 너희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웃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고 영원에까지 좋은 생각이 너희를 따라오게 이 땅의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고 그들의 기도에 너희를 포함시키게 애써야 한다. 삶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말고 삶을 활용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영원까지 너희를 뒤따라오는 영적인 재물이기 때문에 쇠하지 않고 누구도 너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재물을 이 땅에서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큰 진지함으로 항상 죽음의 순간이 아주 너희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세상의 물질적인 종류의 모든 유혹에 대해 싸울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삶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나 혼이 모든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희생했던 모든 것을 천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영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때 빛의 옷을 입게 하기 위해 어떠한 위험이나 어두움이나 무능력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하기에 충분하다.

모든 혼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의 생각을 포로로 만든 재물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육체의 안락함보다 혼의 운명에 더 많은 의미를 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혼이 이 땅의 길을 헛되게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은 삶을 목적에 합당하게 살았고 영원을 위한 재물을 모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 된 길이라면,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너무 늦은 일이 아니다.

너희는 언제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너희의 실제적인 이 땅의 과제를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언제든지 사랑의 삶을 연습하고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이 너희가 자기 사랑을 뒤로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고 이 사랑을 통해 너희에게 축복된 삶을 보장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될 끝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라. 너희가 영광을 볼 수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의식하고 의식한대로 그렇게 살라. 그러나 너희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단지 믿음으로 행해야만 한다. 사랑의 삶을 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너희는 그러면 어떠한 어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빛이 이 땅에서 이미 비치고 언젠가 영원 가운데 비추일 것이다.

아멘

사랑의 사람으로 본질적 변화. 하나님의 임재.

B.D. No. 7351

1959년 5월 1일

너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비로소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너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태초에 너희 존재상태였던 사랑의 사람이 다시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 임재는 곧 사랑의 비추임이다. 이 사랑 비추임은 너희에게 능력과 빛을 제공하고 능력과 빛이 없이는 너희가 복되다고 할 수 없다.

너희가 능력과 빛으로 충만해졌을 때 너희의 전적인 자유의지를 활용해 일해야 한다. 이 자유의지는 나와 반대로 일했으나 이제는 온전히 나에게 헌신한다. 이런 자유와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복되다. 왜냐하면 이는 바로 모든 본래 창조된 영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 저주에 빠지고 이 땅에서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 그와 분명 함께하게 최선을 다할 때 이 불행한 운명을 복된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일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이 두 계명에 합당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원하고 그리고 너희가 고마운 일을 받게 되면 행복해 지는 것을 통해 사랑의 계명에 합당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안다. 너희는 너희에게 너희 동료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너희에게 일어나기 원하는 대로 동료에게 베풀기만 하면 된다. 자선이라고 생각되는 행위를 내 이웃에게 행해야 한다.

너희가 진지하게 이를 행하기 원할 때 항상 이를 위해 필요한 힘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을 것이다. 그가 처음에는 심사숙고해서 행하지만 곧 마음에서 원하는 바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곳을 돕고 베풀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스스로 체험할 것이다.

사랑이 그 사람 전 존재를 채울 것이고 그는 점점 가까이 나에게 올 것이다. 왜냐면 그의 모든 사랑의 섬김으로 나 자신을 그에게 가까이 가게 하고 분명하게 내 임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그의 인생 여정의 목표를 이루고 자신의 성품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목표를 성취시킨다. 그는 그가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처럼 온전해지려고 한다. 그는 내가 주는 은혜와 지원으로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없이는 그가 온전해지지 못한다. 왜냐면 그가 온전하게 되기에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는 내 임재를 확보해야 한다.

그는 나에게 간청해야만 하고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나에게 한번 가까이 와야 한다. 그는 그가 사랑의 사람으로 성품이 변화되는데 필요한 능력을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이 간청은 존재가 변화되려는 진실 된 의지를 의미함으로 철회될 수 없게 이뤄질 것이다. 누구든 한번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한 사람은 그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자신을 극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기회를 받는다. 왜냐면 그가 간청한 능력을 나로부터 분명하게 받기 때문이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을 단지 진지하게 여겨라.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러면 진정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것이고 기회가 주어지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사랑으로 일하게 격려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와 연합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합은 단지 너희가 자유의지로 증명해야만 하는 사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진심으로 너희의 선한 의도를 실행할 수 있기 위해 능력을 구하면, 너희는 항상 내 지원을 체험할 것이다.

내 임재가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통해 또는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항상 내 임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성취시켜줄 것이다. 나는 너희 곁에 있고 너희 곁에 머물 것이다. 너희가 더 이상 나로부터 떨어질 것을 원하지 않을 때까지 너희가 사랑을 행함으로 나와 연결을 굳게 해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까지 그리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이 이뤄지기까지 너희가 너희의 성품을 내 성품과 같아지게 하기까지 이로써 이제 너희의 이 땅의 목적이 성취되고 이제 다시 너희 원래 초기의 사명대로 역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나는 너희를 이끌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

B.D. No. 8019

1961년 10월 15일

인간으로 이 땅에 삶의 길은 너희가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는 성장 과정에 마지막 짧은 단계이다. 그러나 너희가 마지막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올바르게 활용해야만 하는 자유의지를 되돌려 받고 인간으로써 너희 자신이 이 과정을 종료시킬지를 정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왜냐면 너희가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또는 영원한 기간에 대한 너희의 운명을 다시 정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올바른 방향을 가진 의지를 가지면, 너희가 너희의 이 땅에 육신을 벗어날 때 모든 형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이 땅에 삶을 활용하지 않고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다시 변화시켜야만 하는 너희 성품의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너희는 새롭게 가장 굳은 형태를 입을 수 있다.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삶을 사는 유일한 목적이다. 너희는 이런 변화시키는 역사를 완성시킬 기회를 항상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모든 지원을 하고 내가 내 피조물이 내 자녀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그들이 목표에 도달할 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의지를 자유롭게 못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들이 한때 나를 떠났고 이로써 깊고도 깊은 곳으로 빠진 것처럼 그들 자신이 자유의지 가운데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 혼자서는 너무 연약한 곳에 내가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감당하고 돕고 나를 너희에게 계시를 해주어 너희가 나를 깨닫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내가 너희가 단지 이 땅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제한이 없는 분량의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로부터 떠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너희의 의지를 정할 수 없는 내 대적자와 싸움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혼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충동과 정욕과 싸워야만 하고 너희가 성장하려는 이 땅의 삶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는 굳건한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너희는 나에게 요청을 해야만 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응답하고 너희를 영원히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 나에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너희의 완성을 이루는데 능력이 부족하게 될까 봐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 상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 능력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그의 구속역사의 은혜를 요구하고 그가 너희의 죄짐을 용서해주기 원하고 너희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 땅에서 완성시키기 위해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면, 너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그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그에게 향하게 하면, 너희는 나를 다시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떠나갔던 너희의 나에게 귀환이 아버지의 집인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보장 된다.

너희가 단지 나 자신을 모든 충만함으로 자신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면, 너희는 진실로 짧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지막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수가 원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자신의 피로 공의를 위해 큰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일을 통해 타락한 너희의 원죄를 내가 용서하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속죄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왜냐하면 사랑이 단지 이런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가 자신의 고통을 당하는 형제를 위해 이런 사랑을 드렸고 그는 이런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런 사랑이 인간 예수 자신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게 했다.

이런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나는 너희를 다시 내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를 인정하면,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즉 그 안의 나를 인정하면, 너희의 죄가 예수를 통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를 부르는 자는 나를 부르는 것이다. 언젠가 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얼굴을 대면해 나를 보게 된다.

사랑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 영의 불씨. 부어 주심.

B.D. No. 8510

1963년 5월 27일

내 근본적인 요소가 사랑인데 이런 나 자신의 일부분인 신적인 불씨를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서로 떨어질 수 없이 사랑의 힘의 근원인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신적인 불씨를 너희 안에 가지고 있다. 너희가 인간으로써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시작하면, 너희 안에서 불꽃이 일지 않고 타고 있는 이 불씨를 너희 스스로 밝게 타오르는 화염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밝은 빛 가운데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이 없다.

왜냐면 이 화염이 모든 것을 비추고 사람에게 전적으로 비추어주어서 원초에 그가 나로부터 사랑의 빛으로 생성되었을 때 최고로 온전한 존재였던 것처럼 그는 가장 밝은 깨달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은 빛과 능력을 충만하게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지 인간으로써 존재하는 동안에 한때 이 존재가 자유의지로 끊었던 이 연결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밝은 빛과 가장 밝은 깨달음에 도달하고 동시에 능력과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의 불씨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연결을 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자신 안의 신적인 불씨를 스스로 타오르게 한 사람은 더 이상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다. 왜냐면 그는 이미 내 신적인 사랑의 빛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내 사랑의 흐름이 부여될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이다. 왜냐면 이런 불씨가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일하는 자는 나와 연결을 시키는 것이다.

왜냐면 내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사랑 안에서 사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신적인 질서에 원칙이다. 사랑이 이 땅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도달하기 원하면, 너희 스스로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다시 나와 하나가 됨으로써 가능하다.

왜냐면 너희의 원래의 성품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너희의 성품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건 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내가 너희 안에 사랑의 불씨를 넣어 주었다. 왜냐면 너희는 어떤 사랑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영원히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 일부분을 너희 안에 넣어 주면서 너희에게 베푸는 내 도움이 없이는 너희가 이런 다시 변화되는 능력을 갖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불씨를 가장 밝은 불로 지피기 위해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부족함이 너희들로부터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불행이 너희를 떠나 갈 것이다. 영적인 눈이 먼 상태가 가장 밝은 빛에 의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 깨달음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 자체가 너희에게 비추이는 빛이요 이 빛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랑을 통해 너희 안에 영의 불씨를 생명으로 일깨우고 모든 사랑이 없는 상태는 한때 생명으로 창조된 존재에게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너희 자신이 이 상태를 벗어나게 된

다. 내 신적인 사랑의 빛이 이제 너희에게 비추어 질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지식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가장 밝은 빛과 가장 밝은 깨달음을 보장하는 너희의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온전해지는 신적인 상태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영을 부어 준다"는 말의 의미를 너희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느냐? 영이 너희 안으로부터 너희를 가르친다면 이것이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너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느냐?

너희가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나와 연결을 다시 시키면, 나 자신이 너희 안에서 역사해 한 때 너희 스스로 자유의지로 모든 사랑을 버리며 내 사랑의 비추임에 대적함으로 잃어버렸던 깨달음에 다시 도달하게 도울 수 있다. 이 땅의 과제를 성취시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너희에게 신적인 사랑의 불씨를 넣어 줌으로 기회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항상 단지 사랑을 설교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을 하면, 너희는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전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이 부여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되면, 너희는 무엇이 진리인지 너희가 어디서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 것이다. 왜냐면 모든 것이 내 안에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나와 연결이 되면, 너희는 이에 참여함으로써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이 없는 동안에는 너희의 영은 어두움 가운데 남게 된다. 이 영은 너희 안에서 불 씨로써 실제로 잠자고 있다. 그러나 이 영은 행동을 하게 자극을 받지 못한다. 자극하는 일은 항상 사랑을 행함으로써 가능하다. 만약에 너희에게 이런 지식이 전해지면, 그래서 이를 영접하고 이제 이런 지식의 알맞게 너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래서 너희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고 이를 통해 다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에 도달하면, 너희는 축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멘

겸손한 기도. 교만은 대적자의 요소이다.

B.D. No. 7116

1958년 5월 9일

나에게 단지 모든 겸손함으로 너희의 안건을 아뢰라. 너희는 확실하게 내 열린 귀를 찾게 될 것이다. 심장의 겸손은 사람이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주고 그의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단지 아주 자원하여 성취시키는 부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의 이 땅의 삶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면, 사람의 생각이 단지 세상만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 한 가운데 항상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는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것이다.

그는 나를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겸손함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나 또는 영적인 염려가 있으면, 항상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신뢰로 나에게 구할 것이고 그는 진실로 헛되이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이미 나에게 귀환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왜냐면 그의 혼이 끝 없이 긴 시간에 걸쳐서 나와 떨어지게 만든 것은 혼이 한때 깊은 곳까지 따라갔던 내 대적자의 요소인 교만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교만의 불씨라도 있는 모든 사람은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다.

그가 나를 대항해 반항하는 교만한 성품을 버리기 전에는 그는 내 영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교만한 성품을 통해 자신에게 제한을 가하기 때문이고 그는 아버지와 올바른 자녀의 관계를 이룰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이루기 위해 심장의 겸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겸손한 심장으로 나를 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동안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하는 기도는 실제로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한 느낌이 동인이 되어 이뤄지는 요구이다.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나의 귀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면 신뢰의 관계인 자녀가 부탁하는 대로 자녀에게 베풀어 주게 나를 강요하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긴밀한 연결이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은 이성의 생각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럴지라도 이는 그가 깨달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교만한 자세를 이미 버렸다는 증거는 아니다. 반면에 나를 아버지로 깨달았다면, 교만을 극복한 것이다. 사람은 나에게 대해 자신의 낮음을 느낀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나에게 다가온다.

왜냐면 겸손한 심장 안에 나를 깨닫고 나에게 향하는 사랑이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자녀에게 내 은혜를 부어줄 수 있고 자녀는 내 손에서 감사해하며 나와서 간격을 항상 줄이는 데 도움 주는 내 은혜를 받는다. 사람이 자신의 교만을 버리면, 그가 자신을 적게 여기면, 그럴지라도 그가 특별하게 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이는 의미가 있는 일이다. 왜냐면

그가 진실로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 그가 한때 가졌던 빛의 정도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주로 영적인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세상의 위험들 가운데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성장이 그에게 가장 큰 염려이고 그는 자신이 이 땅에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도움을 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단지 진실로 겸손한 사람만이 나에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적인 겸손과 단지 외적인 보여주는 낮아짐과 구별해야만 한다. 단지 외적인 보여주는 낮아짐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너희에게 은혜를 제공해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내적인 생각과 느낌이 어떠한지 자신에 대해 비평해야 한다. 만약에 사람이 모든 거만한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한때 교만으로 타락하게 만든 자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려고 하면, 이 일은 단지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B.D. No. 8313

1962년 10월 29일

나와 모든 연결은 나에게 향하는 모든 생각은 너희 혼의 가장 큰 축복이다. 나는 이를 항상 또 다시 말한다. 사랑의 힘이 너희 안으로 흐를 수 있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열기 때문에 항상 또 다시 내 사랑의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는 측량할 수 없다.

이는 너희가 내 대적자로부터 의식적으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다. 이는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를 해결하는 일이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 내 사랑의 흐름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 왜냐하면 너희들 스스로 분리 된 상태가 해결되길 원하면, 너희의 생각이 이제 나를 향해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더 이상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 사랑이 다시 비추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다시 내 사랑을 비추임 받는 것은 너희의 성품을 서서히 원래 초기에 너희가 가졌던 성품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비추어진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 측량할 수 없는 축복된 존재로 되는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향한 모든 생각이 이런 사랑이 비추어지게 함을 너희의 혼이 이 땅에서 거절할 수 없이 성장해야만 함을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더 이상 장애가 없음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 사랑으로 다시 비추어 질 수 있게 되는 것과 너희에게 빛의 나라의 문이 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선행조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너희에게 흘러가는 능력이 너희는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사랑 안에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너희 안에서 밝은 빛으로 빛나게 되어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높은 깨달음의 정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예수의 구속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모두 드릴 것이다. 이는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너희에게 열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의 혼이 나로부터 계속하여 능력을 받을 때 이 땅의 너희의 삶의 목적은 단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로부터 온 능력이 흘러가기 위해 너희가 너희 심장을 자유의지로 여는 일이 필요하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일을 통해 만드는 나와 의식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왜냐면 내가 나에게 향한 생각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향하면, 너희는 나 자신을 너희에게 끌어들인다. 나는 이제 너희의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나는 동시에 너희의 혼을 소유하고 너희들로부터 대적자를 물리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렸기 때문이다. 이제 나에게 드리는 헌신이 의식적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 너희는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드러서 너희가 나로부터 붙잡힘을 받게 되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를 이 땅의 삶의 과정에 너희의 인도자로 선택한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너희의 친구요, 형제요, 이 땅의 너희의 순례자의 길에 동행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길 나에게 구하면, 그러면 너희는 전적으로 어떠한 염려도 할 것 없이 너희 자신을 나에게 맡길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확실하게 이 땅에서 전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는 이 땅의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의 귀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한때 생성되어 나왔던 나에게 다시 온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나에게 드리는 너희의 일 분, 일 초의 시간이 축복 되고 너희는 항상 나에게 더 오래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의 힘이 내 임재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이 땅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의 나라가 너희에게 항상 더욱 추구할 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의 이 땅의 삶은 더욱 강하게 영적인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서 다시 타락할 위험이 이 세상과 세상의 물질을 추구할 위험이 사라진다. 왜냐면 너희가 증가되는 사랑의 흐름을 통해 너희에게 깨달음의 형태로 제공되는 영적인 보물을 한번 소유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이 너희를 더 이상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내 사랑은 너희 안에서 사랑을 행하게 항상 더 강하게 자극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땅에 삶의 목적을 이를 것이다. 왜냐면 사랑만이 너희를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너희를 모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너희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너희는 성숙한 가운데 이 땅에 육체를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자유롭게 영적인 존재로 빛과 축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나라 안에서 너희는 나와 연결을 이루게 되고 너희의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역사할 수 있다.

아멘

내가 계속적으로 너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너희가 나를 너희에게 이끌기 위해 너희가 단지 너희의 생각을 나에게 향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너희가 나에게 부탁을 하면, 너희 스스로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낮아져 임해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이 내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나에게 기도를 하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나와 연결이 되길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들과 하나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가 되는 것은 너희가 자유의지로 이루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나에게 귀환은 보장이 된다. 나에게 귀환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제한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측량할 수 없이 내 사랑의 흐름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나를 절대로 너희의 생각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면서 너희가 항상 또 다시 너의 자신을 나에게 향하게 하면서 자주 가능한 한 비밀스러운 단 둘만의 대화를 하면서 단지 너희 자신을 이런 사랑의 비추임에 열어라.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답변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공개적으로 답변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내 능력의 흐름이 하내 답변이다. 너희가 높은 곳으로 성장하기 위해 계속하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긴밀하게 나를 생각하고 생각으로 나와 대화를 하면서 내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받는 것을 너희는 너희 이웃에게 다시 전달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 능력의 흐름이 너희가 붙잡아서 다시 전달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하는 말인 내 말씀의 형태로 주어 진다.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는 내 사랑을 증거하는 내 말을 너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능가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너희는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존재와 내 임재의 증거를 받는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백한 그의 사랑의 증거를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쇠하지 않는 재물이고 너희가 영원히 더 이상 잃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감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것을 다시 선물한다. 너희에게 다시 빛과 능력이 전해지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이 너희의 빛이 없고 무능한 상태를 알고 이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자신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항상 베풀어 준다. 사랑은 행복하게 해주기 원한다. 너희가 받는 내 말은 진실로 너희를 축복되게 해줄 은혜의 선물

이다.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 가치를 아직 측정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저세상에서 너희는 이런 부유함을 바라보고 나를 영원히 찬양하고 칭송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런 내 사랑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그의 자유의지가 그가 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될지 은혜의 선물을 거부할지 결정을 한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선물을 그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올바르게 깨달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 나를 향한 올바른 사랑을 느끼게 나는 너희에게 비추어 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비추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주 긴밀하게 나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감동을 주는 너희가 다시 사랑을 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너희를 채워주는 내 사랑의 흐름에 너희 심장을 여는 것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의 생각을 채우기를 원한다.

나는 단지 너희가 나를 제외시키지 않기를 원하고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너희의 생각을 자주 위로 향하게 하여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끝 없이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너희가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된 삶에 도달하게 도와주기를 원하는 분을 생각해야 한다.

나는 진실로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임재를 느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쾌활하게 염려가 없게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절대로 능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성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너희에게 흘러 들어가는 능력이 너희들로 하여금 사랑을 행하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를 통해 이 땅의 너희의 삶의 목표와 목적적인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게 된다.

아멘

사랑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

B.D. No. 5357

1952년 4월 8일

내 뜻은 항상 사랑을 통해 나와 너희 사람들과 연합하는 일이고, 연합하는 일로 머문다. 사랑이 유일하게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랑이 유일하게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을 없앤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너희 안에 사랑이 타오르게 해야만 하고, 사랑이 너희에게 선물로 전달될 수 없다. 사랑은 유일하게 단지 하나의 너희 자신의 감정이고, 너희가 이전에 신적이지 못했다면, 이로써 너희가 아직 완전히 자기 사랑에 빠졌다면, 너희를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해야만 한다. 즉 너희는 이런 감정을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꿔야만 한다. 이런 사랑이 이미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사랑이 이미 너희를 나에게 가까이 인도하고, 너희가 나 자신을 이미 너희에게 이끌기 때문이고, 내가 이제 너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너희가 너희 심장 안에서 나를 느끼게 될 때까지 너희를 더 이상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런 나와 연합을 이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 뜻을 성취시킨 것이고, 너희는 또한 이 땅의 너희의 목표인 나와 연합한 것이고, 내 피조물에서 내 자녀로의 변화되는 일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나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고, 너희가 너희의 자기 사랑을 극복하면, 이 계명을 달성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직 너희 모두에게 자기 사랑이 너무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자기 사랑에 완전하게 빠진 사람은 이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나와 연합하고 이 땅의 그의 최종 목표를 성취시키는 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왜냐면 자기 사랑은 세상의 기쁨에서 성취를 추구하고, 자기 사랑은 베푸는 일을 막고, 사람들이 사랑을 행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러므로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를 깨닫는 일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자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 안에 광선을 발산하는 빛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웃의 곤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역사할 수 없다.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갈망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포기하면, 그는 자신 안의 사랑의 불씨에 불을 붙이고 나에게 다가간다. 왜냐면 사랑이 유일하게 인간과 나 사이를 연결시키는 수단이고,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목적이자 목표인 우리 사이에 연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와 연합이 존재에게 비로소 행복을 주는 반면에 자기 사랑은 사람들을 대적자에게 몰아 넣고, 대적자는 점점 자기 사랑에 더 부채질을 하고, 단지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약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나와 연결이 된 가운데 축복될 수 있는 너희의 삶을 생각한다.

아멘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내 영원한 계획이고 이 계획은 실행이 될 것이고 단지 이런 변화에 걸리는 시간은 너의 자신이 정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왜냐면 너희는 언제든지 그에게 능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언제든지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너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구매해 주기 위해 모두가 이 은혜로 나에게 귀환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권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한때 나로부터 창조된 존재들은 깊고도 깊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극복함으로써 인간으로써 존재하는 정도에 도달해야 하고 이제 자신의 완성을 위해 자유의지로 이 수준을 높여야만 한다. 다시 말해 내가 모든 온전함으로 내 권세와 내 사랑으로 생성되게 했던 자신의 원래 성품을 덧입을 때까지 수준을 높여야만 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 권세가 너희의 온전함의 근거가 아니고 너희의 자유의지가 온전함을 추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희는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원래 초기의 내 계획대로 했다. 인간으로써 단지 아주 짧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너희의 자유의지가 시험이 된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시간은 영원에 비할 때 단지 눈 깜짝할 사이이고 이런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올바르게 향하게 하면, 완성에 도달하는데 충분하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함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사람들은 의지를 올바르게 향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 은혜의 크기는 소모되질 않는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요구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그에게서 그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속자인 그 안에서 나 자신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그 자신으로부터 빛과 축복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자신을 그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이제 나를 깨닫고 자신을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했던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동시에 자신이 마지막 성장을 이루게 자신의 원래 초기에 가졌던 성품을 바꾸는 마지막 목적에 도달하게 도달하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는 것으로써 피조물에서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 자신만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왜냐면 그는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아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직 자신의 원죄의 짐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자신을 완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이를 방해하고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을 깨닫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단지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한다. 이 결정을 위해 그에게 이 땅의 삶이 주어 졌다.

왜냐면 그가 인간의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다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의지와 내 권세가 뒤로 물러나고 사람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표는 아주 높고 의미가 크다. 왜냐면 피조물로써 최고 단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존재에게 내 권세가 선물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제한이 없는 축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완성시켜야 할 완성시킬 수 있는 너희 자신의 역사이다.

왜냐면 내 사랑이 항상 너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그러나 너희에게 넘치게 은혜의 수단을 선물한다. 내 사랑은 너희에게 너희가 성취시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 사랑은 너희에게 비추어지고 너희가 이런 사랑의 비추임에 자신을 여는 만큼 너희의 위를 향한 성장은 쉬워질 것이고 너희는 더욱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에게 인간으로써 초기에 가진 강한 자기 사랑을 올바르게 신적인 단지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는 주려고 하는 전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성품을 전적으로 바꾸기 위해 자신 안에서 이 사랑을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할 수 있다. 그에게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원죄가 사함을 받으면 내 대적자에게 속했다는 증거인 자신의 자기 사랑을 극복한다. 그는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는 사랑 안에서 항상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열중할 것이다. 이 사랑은 혼에게 설명을 해주고 혼을 밝게 해줄 것이다. 이 사랑은 성장할 것이고 혼을 전적으로 채울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귀환의 완성에 이르렀고 나는 내 목표에 도달한 것이다.

아멘

다시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다.

B.D. No. 7133

1958년 5월 28일

한 때 영들이 나를 떠나 타락한 후에 생각할 수 없는 긴 시간이 이미 흘러갔다. 그러므로 생각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불행한 상태에 빠져 있다. 왜냐면 그들이 굳어진 후에 다시 말해 나로부터 끝 없이 멀어진 간격이 더 이상 영적인 존재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의미하는 내 사랑의 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죽음의 상태는 상상할 수 없게 고통이 충만하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의 원래 상태는 빛과 능력 가운데 자유했고 이제 그들의 상태가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 귀환의 길에 이미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는 너희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제한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온전하게 되기 직전의 마지막 단계에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해 이 기간을 영원히 영원한 기간이라고 말해야만 한다. 너희가 이미 보낸 귀환 과정은 영원한 시간에 걸쳐 이뤄 졌다. 이제 다시 가장 축복된 영적인 존재로 너희가 생성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지막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너희에게 단지 작은 수고

만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의 원래의 상태의 축복의 정도는 측량할 수 없게 높아 이 정도에 도달하는데 존재의 의지가 요구되고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는 일이 바로 이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실제 귀환은 영원한 기간에 걸쳐 내 영원한 질서와 내 구원계획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므로 끝 없이 긴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언젠가 특정한 성장 정도에 도달한다. 그러나 먼저 모든 각각의 존재의 자유의지로 자신이 이런 위로 성장하는 일에 동의해야만 한다. 동시에 존재가 이제 한때 저항했던 내 뜻을 따를 자세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가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던 것처럼 자신이 자유롭게 나를 다시 추구해야만 한다. 존재가 전에는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마지막 짧은 과정을 가는 끝 없이 긴 가장 쓰라린 고통과 위험한 길을 마치고 상태를 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 아주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너희 사람들이 이런 내 계시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이 이 계시가 진리임을 너희가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에게 증거를 제시하는 일은 너희가 자유롭게 의지의 결정을 하는 일을 막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가 소용이 없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에 관한 깨달음을 일상적이 아닌 방식으로 얻은 일은 특별한 은혜이다.

너희는 단지 이 방식을 통해 아직 너희에게 계속 제공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 뜻을 알고 이런 내 뜻을 따를 자세를 가지면, 너희는 증거가 없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람이 인간으로 존재하게 만든 원인인 아주 중요한 과정들이다. 너희는 이런 과정들을 알지 못한다. 단지 믿게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너희가 이를 알게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것도 단순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진리를 체험하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봐야 한다. 진실로 진리는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왜냐면 진리를 향한 갈망이 이미 나에게 향한 의지를 증명하고 내가 이런 의지를 깨닫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람이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나와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고 자유와 빛과 능력 가운데 축복된 상태가 된다.

아멘

가장 짧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B.D. No. 7300

1959년 3월 6일

나는 너희에게 나에게 인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 주기를 원한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나에게 인간으로써 곁형체가 된 이로써 내가 너희를 위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큰 죄에 대한 속죄의 역사인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죄에 빠지게 된 이 때문에 스스로 가장 큰 불행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할 내 피조물인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이 공훈의 역사를 완성했다. 내 사랑이 너희를 위해 죄를 짊어지고 너희를 위해 속죄하기 원했다. 왜냐면 이런 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이 너희의 모든 사랑을 버렸다. 너희는 내가 주는 모든 사랑의 비추임을 거부했다. 너희에게 전적으로 사랑이 없게 되었다. 이런 큰 원죄가 바로 단지 사랑을 통해 속죄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언젠가 다시 자유롭게 되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원하면, 내 사랑이 너희를 위해 죄를 사해줘야 만했다. 너희는 이제 내 구속사역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항상 자유 가운데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 너희 스스로 나로부터 다시 능력이고 빛이고 자유인 내 사랑으로 비추임을 받고 충만하게 되기 원하는 일이 너희 자신에게 달려 있는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영역에 들어 가기 원하면, 너희는 이전에 이런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갈 수 있기 위해 너희에게 필요한 능력이 제공되기 위해 단지 너희의 의지만이 필요하다. 이 길을 가는 일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다시 내 사랑의 태양의 영역에 거하기 위해 너희의 지금까지의 사랑이 없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에게 돌아오는 길은 단지 하나의 길인 사랑의 길만이 있다. 그러나 이 길이 십자가로 인도하면, 너희가 비로소 이 길을 갈 수 있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너희를 아직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단지 그를 향한 길을 가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너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은 동안에는 사랑의 역사를 해하려는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주님 만이 유일하게 그가 십자가에서 얻은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부어주어 동시에 너희가 한때 소유했고 너희의 깊은 곳으로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강한 의지를 다시 돌려받게 하면서 너희의 아직 연약한 의지를 강하게 해줄 수 있고 강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빠른 길을 알려 주기 원하면, 이는 너희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이루어야만 함을 의미하고 너희가 그에게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기를 구하고 아직 묶임을 받은 너희의 상태로부터 구원해주기를 구해야만 함을 의미한다.

이런 모든 것은 너희에게 너희의 성품을 남김 없이 바꾸고 영원한 사랑인 내 성품과 다시 같아지게 만드는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한다. 사랑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느끼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는 그의 혼이 연약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얻은 은혜를 활용할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이다. 왜냐면 자신이 너무 연약한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십자가까지 가기만 하면 되고 더 이상 갈 필요 없다. 왜냐면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영접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얻을 수이기 때문이다. 그의 죄짐에 대한 용서는 그에게 확실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성품을 바꾸었고 동시에 그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심장으로부터 원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아주 깊이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성품의 변화는 사랑을 향한 의지가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 왜냐면 바로 존재에게 부족한 것이 사랑이고 내 원래의 성품과 같아지기 위해 이 사랑이 자신 안에서 다시 불타 올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과제 때문에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 자신의 이 땅의 과제를 성취시키려는 선한 의지를 가지면, 그는 이 사랑이 자신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지가 모든 것이다.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하게 되는 일을 확실하게 체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사람의 가장 큰 과제이다. 그러나 이 과제를 성취하면, 너희에게 약속된 것처럼 능력과 자유와 빛과 축복이 너희에게 보장된다.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

B.D. No. 8042

1961년 11월 18일

내가 너희에게 선물하게 하라. 왜냐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아주 크고 나는 항상 단지 베풀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열려진 심장 외에는 즉 나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받으려는 의지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넘치게 선물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선물할 것이다. 너희의 육체와 영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져서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표와 목적대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와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내 은혜를 충만하게 너희에게 부어 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연약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도움이 없이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높은 곳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말할 수 없이 축복된 온전한 존재가 되길 원한다. 너희는 내 일 부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의 나에게 자유의지로 너의 심장을 열고 나 자신이 너희를 소유하기를 갈망하지 않는 한 너희는 아직 나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런 의지와 갈망이 너희 안에서 살아나야만 한다. 이를 위해 너희는 힘과 은혜가 필요하다. 왜냐면 너희는 아직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통해 의식적으로 나와 연결이 되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는 아직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항상 너희가 내 사랑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너희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노력을 한다. 나는 너희에게 계속하여 사랑의 선물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제공자에게 향하게 하게 했다. 왜냐면 그럴 때 비로소 이런 사랑의 선물이 너희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단지 너희의 내 사랑을 느끼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너희 심장을 여는 것이 내 사랑의 비추임을 받으려는 자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 너희의 스스로 그로부터 창조 되어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희는 나에게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의지가 이미 나에게 향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너희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 나

는 너희에게 내 말을 가까이 준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분과 연결이 되려는 갈망이 불타오르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생각으로 설명하거나 너희에게 진리에 합당한 기록 된 문서를 전해주거나 또는 내가 너희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 나는 모든 각 사람을 영접하고 그래서 사랑이 응답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영원한 사랑인 나와 하나가 되길 추구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심장에 사랑을 비추어 주기 원한다. 왜냐면 나는 나 자신을 항상 선물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창조물인 너희를 계속하여 행복하게 해주기 원한다. 왜냐면 내가 계속하여 너희가 응답하는 사랑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응답하는 사랑은 다시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 사랑이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음을 너희가 나로부터 아직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사랑이 너희를 뒤 따르다는 것을 너희는 확신할 수 있다.

내가 너희의 사랑을 얻기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응답을 받는 사랑이 비로소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는 내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너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나에게 돌아오게 요구하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속하여 너의 심장에 접촉을 할 것이다.

너희가 아직 너희 자신을 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내 사랑의 힘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복종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축복된 주는 일과 받는 일이 끝이 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원래의 성분이 사랑이고 너희들도 다시 너희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계속하여 내 사랑으로 너희가 나에게 속하게 되고 영원히 속해 남을 때까지 뒤따랐기 때문이다.

아멘